

통합치료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문소영(명지대학교)

부 회 장 : 김은연(명지대학교)

총 무 : 이상은(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선우현(명지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박은선(명지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임지숙(명지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미진(호주기독교대학교)

윤 리 위 원 회 : 윤정숙(이화여자대학교) 정은정(명지대학교) 조민자(명지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이은경(명지대학교) 최정현(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노남숙(명지대학교)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학제 간 연구위원회 : 최광현(한세대학교) 최명선(명지대학교) 양심영(숭의여자대학교)

간 사 : 정혜전 이하경

감 사 : 한영주(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홍혜영(명지대학교)

<차 례>

- 소방공무원 대상 중재프로그램 연구동향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연구중심으로-
유선경 5
-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안지영·홍혜영 25
- 한부모 다자녀가족을 위한 가정방문 음악중재 사례
조희연·이미아·문소영 53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78

<별첨 2> 투고규정 / 81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83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90

소방공무원 대상 중재프로그램 연구동향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연구중심으로-

유선경*

경기도소방심리지원단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대상 중재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살펴 향후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제어 검색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중재프로그램 논문 22편을 선정하였고 문헌연구방법인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중재기법, 중재방법별로 분석하였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은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연구주제는 정신건강에 부적요인과 관련 있는 주제에서 점차 정적요인과 관련 있는 주제로의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양적연구는 15편, 질적연구를 포함한 연구는 7편이었고 단일군연구가 12편으로 비교군 실험연구 10편보다 많았다. 단일다수기법중재프로그램에서 중재기법으로 예술심리치료기법의 사용빈도는 9편으로 가장 많았다. 캠프프로그램과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에 기반 한 심신이완을 위한 기법, EMDR, 대체의학적 기법 등을 사용한 정신건강교육,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에 근거하여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소방공무원, 중재프로그램, 정신건강

* 교신저자: 유선경(susukeke@naver.com)

■ 게재 신청일 : 2022년 6월 23일 ■ 최종 수정일 : 2022년 8월 12일 ■ 게재 확정일 : 2022년 8월 18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현대사회는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자연 재난 발생과 더불어,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등으로 인하여 인적 재난의 발생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점점 더 복합 재난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최승수, 2019). 2019년도 말에 발생한 코로나 19는 2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2020년 4월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38명이나 발생하였으며, 2021년 6월 구광물류센터 화재와 2022년 1월 평택물류창고 화재에서는 구조에 나선 소방공무원 4명이 순직하였다. 또한 2022년 3월에는 역대 최장기간·최대 피해규모인 울진·삼척 산불(경향신문, 2022)이 발생하는 등 각종 사고, 재난, 재해 현장의 위험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겠다.

이러한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은 본인의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업무 수행하는 장소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고위험 공무 직업군인 경찰이나 군인의 스트레스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김인아, 김석현, 2017).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심리적인 건강을 위해 특수한 업무환경과 연관된 스트레스에 부합하는 정신건강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은 비로소 2012년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의 만족이 개인의 사명감과 소명, 민원처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다(박남춘, 2016).

2012년 이후부터 소방청의 심신건강 사업은 예방과 치료의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방단계로 각 서에 정신적·신체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가치유 공간을 마련하였고, 찾아가는 상담실을 2018년 이후 권역별 전문기관 위탁으로 전국 소방서에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정신건강 전문조사로 선별된 대상군에게는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치료단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전문상담소에서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한 소방공무원에게 비밀보장 원칙하에 정신건

강 상담·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김인아, 김석현, 2017).

소방청의 심신건강 예방단계 사업인 찾아가는 상담실, 심리안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또는 기타 경로로 제공되는 중재프로그램은 다양한 전공영역을 가진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제공되어 왔다.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 이전에는 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증상과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흡연, 알코올 사용 정도 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와 함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졌고, 중재연구로는 소방공무원의 PTSD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적용(서호준, 채정호, 2006; 김세경, 이동훈, 장벼리, 천성문, 2015, 재인용)과 인지행동 스트레스관리(남춘연, 2011)정도였으나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중재연구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진행하는 중재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의학, 상담심리, 심리치료, 사회복지학, 간호학 등의 다(多)학문적이며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학문들이 사용하는 ‘치료’, ‘개입’ 또는 ‘중재’는 어려운 상황에 의도적으로 관여하여 문제를 개선시키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결과 또는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정의(진혜경, 김문자, 이은남, 2019)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대상 중재프로그램들이 치료적 개입만을 포함하지 않고 정신건강 교육 및 대체의학적인 방법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중재’는 치료 또는 개입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여 살펴본 2012년 이후 22편의 중재프로그램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의 캠프프로그램은 PTSD를 중재하기 위해 마음빼기 명상(김재환, 이인수, 유양경, 2019), 숲치료, 아로마테라피, 단체디브리핑, 명상 및 요가 등(조선덕, 2014)의 단일 기법 위주로 제공하는 연구 외에 다수의 중재기법을 제공한 연구가 있다(신정하 외, 2018; 박충희, 2021). 그리고 PTSD, 우울, 자살과 같은 정신문제를 중재하는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김재준, 최태영, 김소연, 박주현, 2017; 모정민 외, 2017; 한동수, 배정미, 2018)들은 다수의 중재기법과 방법으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장소로 찾아가서 제공했다.

또한 미술치료(박미영, 2012; 백연우, 최미선, 2017; 김영애, 2018), 인지행동치료(남춘연, 김희숙, 권소희, 2013)와 음악치료(윤지영, 2016; 백미례, 김유리, 2016)연구는 직무스트레스감소나 스트레스해소 효과를 살폈으며, 윤혜선, 윤현서(2022)의 연구는 삶의 의미, 회복탄력성, 자기이해, 대인관계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요인을 돕기

위해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표현 예술의 치유적인 원리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행동치료기법인 명상과 신체자각 등을 포함하는 통합예술치료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신체적·심리적으로 긴장상태가 높음을 주목하여 신체감각에 집중함으로써 회복과 이완을 돕는 행동치료적인 접근 방법의 일환인 명상이나 요가는 단일기법의 방법으로 수행되거나(육영숙, 2018; 강화, 2019), 호흡명상과 점진적 근육이완과 같은 기법들과 함께 거의 모든 중재프로그램의 구성안에 포함되어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돌봄이 연장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중재연구 프로그램들의 내용과 방법들을 살펴보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한편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 소방공무원의 PTSD만을 중재한 프로그램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가 2편이 있다. 강민주(2019)는 국내 7편, 강민주, 김영화, 이상구 및 한승우(2021)는 국내 7편, 국외 4편 등 11편의 PTSD 중재프로그램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방공무원의 PTSD 중재를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활동들은 낮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효과크기가 큰 프로그램으로는 국내의 경우 음악치료, 국외의 경우 NET(Narrative Exposure Therapy)로 확인했다. 또한 프로그램이 3-5회의 회기로 구성되고 회기당 60-90분, 집단기법으로 구성하는 경우 높은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중재프로그램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임미혜, 광민영(2021)은 국내 10편, 국외 9편 등 19편의 중재프로그램연구를 고찰한 결과, 소방공무원 대상 심리중재의 3가지 핵심요인으로 극복력 증진 중재, 초기 위기 중재, 소방공무원 맞춤형 회복 중재를 정리했으며 일회성중재가 아닌 지속적인 효과를 가진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최근에도 통합적 고찰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PTSD가 여전히 주된 연구주제임을 보여준다.

강민주(2019), 강민주 외(2021), 임미혜, 광민영(2021)의 연구들은 효과적인 특정중재기법이라든가 중재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중재시간 및 방법을 밝히고,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고려한 심리중재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PTSD 중재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거나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중재기법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가 다루어지지 않았고 중재프로그램연구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연구자들의 초점과 제공된 중재방법의 변화를 살핀 연구는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1년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중재한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재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중재기법과 방법들의 이론적 차원의

검토는 중재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었던 22편의 중재프로그램연구들에 대해 문헌고찰방법인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연구설계와 중재설계의 내용 및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향후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 중재프로그램이란 소방공무원의 환경적·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공무원대상 정신건강 중재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소방공무원대상 정신건강 중재프로그램 구성의 특성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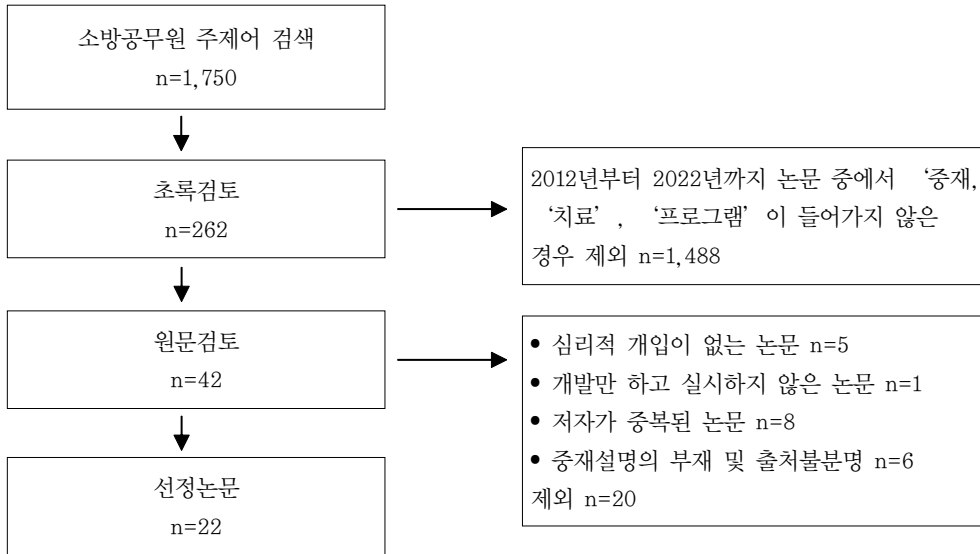
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분석대상 국내논문 선정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riss.kr>),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 한국과학기술정보원(<https://scienceon.kisti.re.kr>),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DBpia(<http://www.dbpia.co.kr>)를 활용하였다.

‘소방공무원’을 주요 검색어로 하여 1,750개의 논문을 검색하였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논문 중에서 ‘정신건강 또는 심리’ 변인과 연관된 주제로 총 262개의 논문을 1차 분류하였으며, 초록을 검토하여 ‘중재’,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논문 22편, 학위논문이 20편으로 총 42편을 분류하였다(최종검색 2022년 3월). 분류된 논문의 원문을 확보하여 검토한 후 최근 11년간 소방공무원대상으로 수행한 정신건강의 심리적 요인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연구 총 22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표 1>에 제시하였다. 학술지논문과 학위논문이 중복될 경우

에는 학술지 논문을 분석 대상 논문으로 채택하였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학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제외기준은 첫째, 중재방법에 심리적 개입이 없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실시되지 않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셋째, 저자가 중복 출간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넷째, 치료 또는 중재기법의 출처가 모호하거나 중재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였다.



〈그림 1〉 분석대상논문 선정절차

〈표 1〉 발행연도별 자료형태에 따른 논문 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석사	1				1				1	1		4
박사			1				1	1				3
학술지		1		1	1	3	4	2	2		1	15
	1	1	1	1	2	3	5	3	3	1	1	22

2. 분석방법

선정된 논문들의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분류기준 선정 절차에 대해 언급한 선행논문들의 분석 준거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분류범주를 작성하였고(박경화, 전영주 2018; 서정은, 전영주, 2021), 문헌연구방법인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연구 시기는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한 2012년부터 2022년까지로 제한하여 년도 별로 게재 편수를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설계는 연구시기,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주제의 빈도를 확인하여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중재프로그램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셋째, 중재설계는 단일기법중재와 다수기법중재로 나누어 각각의 기법들의 빈도를 살펴보아 해당 중재기법의 사용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수행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분석기준

기준	내용
연구시기	2012~2022, 총22편
연구유형	단일군설계, 집단 간(실험군 vs 통제군) 설계
대상인원	4~787명
연구설계	연구방법 사전-중재-사후(양적비교), 사전-중재-사후(양적+질적조사), 사전-중재-사후-추적조사, 중재 후 질적조사
연구주제	PTSD, 우울,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자살, 불안, 수면, 알코올 의존, 사건충격, 사건관련반추, 피로, 스트레스대처방식, 기분상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직업만족도,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력,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중재설계	중재기법 무용동작치료, 음악치료, 숲치유, 의미요법, 정신건강교육, 이야기치료, 요가심신테라피, 명상, 마음빼기명상, 마음챙김기반 신체-심리운동, 미술(예술)심리치료, 해결중심치료, 인지행동치료, 심신이완요법
중재방법	캠프, 개인, 집단, 교육+집단, 개인+집단+교육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주1회 또는 주2회 (회당 50분~120분) 총2회~13회

Ⅲ. 연구 결과

1. 기초사항에 대한 동향

중재연구논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편이며, 2016년 2편, 2017년 3편, 2018년 5편, 2019년 3편, 2020년 3편, 2021년 1편, 2022년 1편으로 보건안전법제정이 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시행권고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중재프로그램이 대면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후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윤혜선, 윤현서(2022)의 논문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대면으로 실시한 인원까지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연구유형은 양적연구는 15편, 질적연구는 4편이며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함께 한 연구는 3편이었는데 그 중에서 사전사후검사 후 추적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정도를 살핀 연구도 3편이 있었다. 실험군과 통제군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논문은 10편이며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가 12편이었다. 질적연구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현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피고 향후 중재프로그램의 제공시 필요한 개선사항·요구사항들을 구체적인 진술로 확보하였다.

2.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주제는 정신건강에 부적요인이 있는 주제와 정적요인이 있는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부적요인 중에서 PTSD가 10편으로 가장 많고, 우울 8편, 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는 9편, 자살 2편, 불안 3편, 수면 2편, 알코올의존, 사건충격, 반추, 피로 등은 각각 1편이었다. 이는 매년 전국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전수조사에서 PTSD, 우울, 수면, 알코올, 자살위험성 등이 보고되어 중재필요성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증상을 줄여서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연구의 방향이 년도 별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의 연구에서 정적요인이 있는 연구주제로 수행하고 있음이 보인다.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도 부각되면서 외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공동체 의식, 사회적지지, 자기 효능

감, 긍정적 대처, 공감 만족(김민정, 2020)등을 중재하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조절력, 회복탄력성,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연구주제의 부적요인과 정적요인별 분류

	연구주제	논문 예	
부적 요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이승은(2021), 박충희(2021), 김재환외(2019), 신정하외(2018), 한 동수외(2018), 육영숙(2018), 김영애(2018), 모정민외(2017), 김재 준외(2017), 조선덕(2014)	
	우울	이승은(2021), 신정하외(2018), 모정민외(2017), 김재준외(2017), 한동수외(2018), 조선덕(2014), 남춘연외(2013), 박미영(2012)	
	스트레스	윤혜선외(2022), 이승은(2021), 허미라외(2020), 신정하외(2018), 조선덕(2014)	
	직무스트레스	백연우외(2017), 백미례외(2016), 남춘연외(2013), 박미영(2012)	
	자살	이승은(2021), 김재준외(2017)	
	불안	허미라 외(2020), 김재준외(2017), 윤지영(2016)	
	수면	이승은(2021), 모정민외(2017)	
	알코올의존	이승은(2021)	
	사건충격	김재환외(2019)	
	사건관련반추	김재환외(2019)	
	피로	윤지영(2016)	
	정적 요인	스트레스대처	백연우외(2017), 백미례외(2016)
		자아존중감	정애란(2020)
자아탄력성		정애란(2020)	
직업만족도		정애란(2020)	
자기효능감		허미라외(2020)	
자기조절력		강화(2019)	
자기이해		윤혜선외(2022)	
대인관계		윤혜선외(2022)	
회복탄력성		이인수외(2018), 윤혜선외(2022)	
삶의 의미		이근출외(2020)	
삶의 만족도		육영숙(2018)	

3. 단일 기법과 다수 기법 중재설계 분류

단일기법 중재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기법은 음악심리치료 3편, 미술(예술) 심리치료 3편, 명상관련 기법도 3편이고, 나머지 기법들은 각 1편씩이다. 2012년 이전에는 주로 인지행동치료기법이 중재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에 반해 2012년 이후에는 1편정도(남춘연, 2013)이며, 행동 치료적 기법인 EMDR기법, 점진적 근육이완을 프로그램 구성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표 4〉 단일 기법 중재설계별 분류

기법	논문에	방법	인원	설계	기간
음악심리치료	이승은(2021)	집단	4	단일군	주2회, 50분, 총12회
	백미례외(2016)	집단	80	실험40, 통제40	주2~3회, 30분, 총10회
	윤지영(2016)	개별	19	실험15, 통제14	20분, 총4회
이야기치료	정애란(2020)	집단	50	실험27, 통제23	주1회, 50분, 총8회
미술(예술) 심리치료	김영애(2018)	개인	12	단일군	총10회
	백연우외(2017)	집단	20	실험10, 통제10	주2회, 90분, 총13회
	박미영(2012)	집단	48	실험24, 통제24	주1회, 90분, 총12회
해결중심치료	이윤수(2015)	집단	8	단일군	1회당 120분, 총2회
요가테라피	강화(2019)	개인	4	단일군	주1회, 60~90분, 총10회
마음빼기명상	김재환외(2019)	캠프	80	단일군	2박3일, 6시간
	이인수외(2018)	캠프	28	단일군	2박3일, 12시간
인지행동요법	남춘연외(2013)	집단	41	실험21, 통제20	주2회, 90분, 총8회
아로마테라피		캠프			1박2일
숲치유	조선덕(2014)	캠프	382	실험191, 통제191	2박3일
단체디브리핑		캠프			2박3일
명상 및 요가		캠프			2박3일

다수기법을 사용한 중재프로그램에서 정신건강교육을 포함시킨 연구는 6편이며 주로 캠프프로그램과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의 일부로 수행되었고,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전체 프로그램 안에 구성하는 통합예술치료적인 연구가 있었으며, 명상과 요가를 병행하여 중재한 프로그램과 예술치료기법을 활용하여 의미요법을 시행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정신 건강 및 정신 질환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은 낙인을 없애고 편견을 피하며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치료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단계((김인아, 김석현, 2017)로 정신

건강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다수 기법 중재설계별 분류

기법	논문예	방법	인원	설계	기간
무용					
음악	윤혜선 외(2022)	집단	787	2년간 총 88회	월1~2회, 1시간30분, 총12회
미술					
숲치료					
명상					4박5일
아로마치유	박충희(2021)	캠프	293	8개월간 9번 실시	실외프로그램 11시간 실내프로그램 8시간
수치유					
정신건강교육					
의미요법					
예술심리치료	이근출외(2020)	집단	108	실험54, 통제54	주1회, 60분, 총8회
안정화기법					
정신건강교육	허미라외(2020)	집단	50	6개월 후 6명 인터뷰	3일간 120분씩 총7회
숲치료					
안정화요법				사후	
미술치료	신정화외(2018)	캠프	90	1,3,6개월에 조사	3박4일
정신건강교육					
정신건강교육					
명상					1회, 60분
EMDR	한동수외(2018)	개인 집단	44	실험22, 통제22	
인지행동치료					3회
명상					
요가	육영숙(2018)	개인 집단	24	실험12, 통제12	주2회, 회당120분 총12회
정신건강교육					
인지행동치료	모정민외(2017)	개인 집단	170	단일군	1회, 60분
EMDR					4회
심리검사					
정신건강교육	김재준외(2017)	개인 집단	502	단일군	해석개인상담1~3회 1회, 50분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의 문헌적 고찰을 통해 추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통해 도출된 소방공무원대상 정신건강 중재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 대상의 중재프로그램의 연구는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제도적 장치로써 ‘힐링 캠프’라는 제목으로 수행되는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정신건강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예방 및 치료라는 소극적인 측면과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유지 및 증진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을 가진다(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용용, 2016).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중재프로그램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러한 점은 연구주체의 추이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동안 PTSD관련 정신건강질환의 증상감소를 중재하는 소극적인 측면의 프로그램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의 유지 또는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적요인의 주제들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측면의 중재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소방공무원은 재해 및 재난현장에 계속 투입되고 이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재개해야 하므로 만성 PTSD를 겪을 확률이 높다(전선영, 2018)고 한다. 특히 근무기간 및 직급에 따라 외상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 정도가 다르며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직무 특성에 따라 외상의 유형이 다르고, 개인이 받아들이는 외상사건의 대한 반응도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류지아 외, 2017; 임미혜, 광민영, 2021, 재인용)은 메타분석을 한 연구(강민주 외, 2021)에서 PTSD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효과크기가 낮게 나온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겠다. 또한 반복된 외상경험에도 PTSD질환으로 이행되지 않는 소방공무원도 있어서 중재를 제공할 때 PTSD증상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의 유지 또는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 측면의 중재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소방공무원대상 정신건강 중재프로그램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캠프프로그램은 정신건강전수조사결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면서 신체와 심리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긴장이완불안감을 줄이는 명상, 요가와

안정화요법이라든가, 마음정화스트레스해소기분전환을 돕는 대체의학적 치료인 숲치료, 수치료와 아로마테라피 등도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체로도 수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율신경계를 균형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고 자기조절력을 향상시켜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중재기법의 사용빈도 면에서 볼 때 예술심리치료기법들을 단일 기법 혹은 다수 기법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거나 통합치료의 기법으로 9편(윤혜선, 윤현서, 2022; 이승은, 2021; 이근출, 박경진, 2020; 신정화 외, 2018; 김영애, 2018; 백연우, 최미선, 2017; 백미례, 김유리, 2016; 윤지영, 2016; 박미영, 2012)에 다수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술심리치료적인 접근은 여러 분야의 예술이 현대 의학, 심리치료, 상담이론이 통합되어 접근되어지는 다각적인 치료기법이다. 창작행위 자체가 가지는 치유성, 저항심을 누그러뜨리고, 정서적인 경험을 기존의 경험 구조 안에서 통합하게 하며 신체가 느끼는 정적인 경험을 분별하고 상징화하며 이를 소유하고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김양민, 박은선, 2021) 기법상의 특징이 있어 중재프로그램 구성에 반영되었다.

최근까지 9편으로 다수 사용된 예술심리치료 접근과 달리, 인지행동치료기법을 사용한 연구(한동수외, 2018; 모정민 외, 2017; 남춘연 외, 2013)는 3편 정도인데 인지행동치료가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를 찾아 수정·통제하는 방식이어서 소방공무원에게 특정 경험에 대해 심리적으로 더 경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육영숙, 2018; 김재준 외, 2017; 임미해, 곽민영, 2021, 재인용) 그 비중이 점차 작아졌다고 보아진다. 조사연구와 달리 중재연구의 특성상 중재를 위해서는 목표 지향적이며 중재자와 대상자와의 관계가 호혜성을 가져야 하고 대상자 중심이어야 한다(진혜경 외, 2019). 하지만 중재의 대상자인 소방공무원은 정신문제에 대한 원인과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중재자의 인지행동치료 접근이 사회적 낙인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예술매체의 창조적 표현활동은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심리적 문제의 노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표현을 확장하며 긍정적 감수성을 일깨우는데 주안점을 두게 되는(윤혜선, 윤현서, 2022) 접근이므로 예술심리치료가 대상자인 소방공무원이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형식적인 참여 또는 거부감을 없애고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행동치료적인 기법인 호흡명상, 안정화기법, 점진적 근육이완과 같은 기법들이 다수의 중재프로그램에서 일부로써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자극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강조하는 수용전념치료 접근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임미해, 곽민영, 2021). 그리고 이야기치로나 해결중심치료는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한 사회구성주의 관점인데 내담자의

실제를 그것이 정확한지 또는 합리적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고 내담자를 문제와 동일시하지 않으며 내담자의 강점이나 자원, 적응능력을 살피서 강화시키는 기법(Gerald Corey, 2017)이어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일기법 중재프로그램에서는 개인상담의 방법과 집단상담의 방법을 각각 사용하는 편이었다. 캠프프로그램은 대체로 집단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상담을 일부 제공하는 경우(신정화 외, 2018)도 있었으며,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병행하는 연구가 많았다(모정민 외, 2017; 한동수, 2017; 김재준 외, 2017).

개인상담의 방법은 개인의 이슈별로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이 있고(김영애, 2018; 강화 2019), 집단상담의 경우 자신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대상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경험을 나누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견고하게 하며, 경험에 대한 수용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김혜리, 2020; 강민주 외, 2021 재인용)이 있지만 개인내적 어려움을 다루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다수기법을 사용한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 전체교육을 통해 자신의 증상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심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성을 높인 연구들(김재준 외, 2017; 한동수외, 2018; 모정민 외, 2017)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도 병행하고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중재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업무시간에 진행되어 업무공백이나 낙인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병행하는 구성은 두 방법이 갖는 장점에다가 시간적으로는 지속적인 개입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 제정된 이후 2022년 3월까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총 22편의 중재프로그램연구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고찰한 결과,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외상경험의 누적된 결과로 만성 PTSD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외상을 경험한 모든 소방공무원이 PTSD를 겪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PTSD에 초점화 된 중재연구에서 벗어나 정신건강에 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중재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소방공무원들은 스스로 정신건강문제를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상황으로만 인식하는 면이 있어 그동안의 정신건강 중재프로그램 제공에 형식적인 참여나 거부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정신문제에 조기발견과 효과적인 치료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 정신건강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정신건강교육은 다수의 중재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

있으며, 부담감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중재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술심리치료적 접근이 다수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중재프로그램의 제공은 음악감상 중재연구(윤지영, 2016)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대면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보니, 2017년 이후부터 3편 이상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년 동안의 연구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분석대상으로 한 전체 중재프로그램연구의 편수가 부족하였다.

둘째, 중재기법에서 예술심리치료와 인지행동치료방법 연구편수를 고려한 함의를 살펴해보았지만 이외에 의미요법, 이야기치료, 마음빼기 명상, 숲치료, 요가, 명상 등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법들의 사용이 이론적 배경에 따른 사회적 맥락 또는 심리이론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관되어 중재된 것인지, 아니면 제공되는 현장의 필요성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중재되었는지는 면밀하게 고찰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캠프프로그램과 같이 특정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선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조직 내 낙인과 업무공백에 따른 부담감을 줄여 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근무기간과 직급에 따른 구분을 통해 캠프프로그램의 참여나 교육연수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소방공무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조직의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일련의 과정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게 정신건강교육은 중요하다. 신입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재프로그램의 경우와 같이 근무기간과 직급에 따른 맞춤형으로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수기법 중재프로그램에 포함된 정신건강전문가가 하는 개인상담의 경우 개별증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어 프로그램 구성에 참조할 사항으로 본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벨소리가 언제 울릴지 모르는 긴장감이 있으며 잦은 출동과 야간근무 등의 업무 상황들 때문에 긴장과 불안이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호흡, 움직임과 촉각 등 신체의 감각을 점검하여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호흡명상이나 점진적 근육이완과 같은 중재방법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소방공무원들이라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 또는 앱기반의 서비스를 구축하여 명상이나 호흡명상, 근육이완을 돕는 서비스에 상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민주, 김영화, 이상구, 한승우(2021).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재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3), 326-336.
- 강민주(2019).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재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3(2), 33-42.
- 강화(2019). 소방공무원의 신체화 증상과 요가심신테라피 경험에 관한 통합연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경향신문(2022). 울진삼척산불.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3112059045#c2b>
- 김민정(2020).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경, 이동훈, 장벼리, 천성문(2015). 고위험 공무 직업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재활심리연구, 22(2), 393-416.
- 김양민, 박은선(2021). 집단예술심리치료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통합치료연구, 12(2), 5-39.
- 김영애(2018).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소방공무원 PTSD치료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청소년기의 경험과 직무충격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아, 김석현(2017). [정책연구]경찰, 소방, 해경 정신건강사업 통합운영방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http://www.riss.kr/link?id=E1659915>
- 김재준, 최태영, 김소연, 박주현(2017). 소방공무원에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불안의학회지, 13(1), 17-24.
- 김재환, 이인수, 유양경(2019). 마음빼기명상 기반 힐링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과 반추에 미치는 효과. 한국화재소방학회, 33(5), 118-129.
- 김혜리(2020).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치료적 개입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경, 이수연, 이운주, 정종진, 최용용(2016). 상담학 사전, 서울: 학지사.
- 남춘연(2011). 인지행동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대처방식,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춘연, 김희숙, 권소희(2013). 인지행동요법을 적용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문제중심 대처방식,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2(1), 12-21.
- 류지아, 하은희, 정최경희, 김지은, 박신원, 김현주(2017). 소방공무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한생물정신의학회, 24(1), 10-18.
- 모정민, 배정이, 광민영, 강수미, 김민경, 배창효(2017).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3(7), 17-33.
- 박경화, 전영주(2018). ADHD아동-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및 가족치료 중재연구 현황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6(3), 455-474.
- 박남춘(2016). 그 날의 기억, 소방관이 괴롭다.(소방공무원PTSD관리제도의 문제점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201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vol.2.

- 박미영(2012). 집단미술치료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충희(2021).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심리생리적 개선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미례, 김유리(2016). 소방공무원의 융합적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음악감상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6), 99-104.
- 백연우, 최명선(2017). 집단예술심리치료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7(1), 157-173.
- 서정은, 전영주(2021). 가족놀이치료 연구 고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9(2), 321-342.
- 서호준, 채정호(200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최근 동향. 인지행동치료, 6(2), 117-129.
- 신정하, 심민영, 이정현, 이다영, 전경선, 오승아, 김지애, 김옥주, 양정일, 이희봉(2018). 소방공무원 대상 캠프 프로그램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추적 및 관련요인 탐색. 스트레스研究, 26(2), 88-94.
- 육영숙(2018). 마음챙김 기반 신체-심리 운동 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29(4), 57-73.
- 윤지영(2016). 선호음악감상이 소방공무원의 피로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선, 윤현서(2022).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해피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적용 사례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39(1), 1-27.
- 이승은(2021). 소방공무원의 노래중심음악심리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수(2015). 소방공무원의 해결중심 집단 상담을 통한 임파워먼트 과정.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10), 270-297.
- 이인수, 전민영, 유양경(2018). 마음빼기명상 프로그램이 119구급대원의 외상 후 성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2(5), 95-104.
- 이근출, 박경진(2020). 의미요법을 활용한 통합예술치료가 신입소방공무원의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23(1), 1-8.
- 임미혜, 광민영(2021).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 중재 연구의 통합적 고찰. 한국정신간호학회지, 30(2), 153-167.
- 전선영(2018).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예측모형.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애란(2020). 이야기치료 활용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덕(2014). 심신이완 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해경, 김문자, 이은남(2019). 간호학에서 치료적 중재에 대한 개념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26(1), 1-14.

- 최승수(2019).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서울.
- 한동수, 배정이(2018).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7(3), 240-251.
- 허미라, 박성옥, 김하나(2020). 신입소방공무원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4(6), 142-153.
- Gerald Corey(2017).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천성문 권선중 김인규 김장희 김창대 신성만 이동훈 허재홍 공역). 서울: 세계이저리닝.

〈Abstract〉

**Trend Analysis of Intervention Program Studies
For the Fire-fighter Officers
(Focusing on Domestic Studies from 2012 to 2022)**

Lew, Sun-kyeng

Supporting expert group for fire-fighters' mental health in Kyonggi-Do

This study offers the groundwork data to facilitate future creation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fire-fighter officers by examining current intervention programs listed on the professional journals from 2012 to 2022. The study selects 22 writings (articles, thesis, dissertations) on fire-fighter intervention programs by keyword searching and analyzes studying periods, subjects, and intervention tools & methodologies of these writings by applying content analysis (one of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s). Recent trend shows the steady increase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fire-fighte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Health, Safety & Welfare Act' for fire-fighters in 2012. The subjects of intervention programs shift from negative factors on mental health to positive factors on mental health. 15 writings are categorized as quantitative research. 7 writings us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one of the studying analysis tools. 12 writings examine single-group, slightly larger than the number of comparative-group study ones(10). Among the single and multiple method intervention programs in the writings examined, Art psychotherapy method is frequently used. 9 writings use art psychotherapy method. Camp programs & mental health improvement programs for fire-fighters feature mental health education, personal counselling and group counselling that incorporate various comprehensive therapy approaches based on fire-fighters job characteristics ranging from mind & body relaxation therapy to EMDR, and alternative medicine method. The study suggests the fundamental requirements to develop and devise intervention program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Key words : Fire-fighter officers, Intervention programs, Mental health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

안지영* · 홍혜영**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등의 지역 출신의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의 심리적 통제는 모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 모의 심리적 통제 모두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부, 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개념명확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경험회피와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대인관계문제는 자기개념명확성과 부적 상관관계, 경험회피와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기개념명확성은 경험회피와 부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섯째, 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를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는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를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는 두 매개변인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통제가 아닌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양육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 대인관계문제, 자기개념명확성, 경험회피

* 본 연구는 안지영(2020)의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22년 7월 10일 ■ 최종 수정일 : 2022년 8월 13일 ■ 게재 확정일 : 2022년 8월 18일

I. 서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타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의 시기는 지정된 학급 생활과는 달리 동기 및 선 후배, 동아리, 이성 관계, 교수, 대외활동 등 관계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된다(권두리, 신나나, 2018).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은 중고등학교 시기의 입시 경쟁으로 인해 타인과 적절하게 관계 맺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여(한정희, 2012), 급격히 확대된 관계의 환경적 변화 속에서 심리적 및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권두리, 신나나, 2018). 이 시기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김성령, 2016), 우울과 불안, 무력감 등 다양한 심리적 혼란의 원인이 된다(Teyber, 2000).

대인관계문제란 두 명 이상의 관계 안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만족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관계를 이어가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의 부재와 결함, 또는 왜곡을 의미한다(최임정, 심혜숙, 2010). 실제 상담장면에서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이 가장 많으며(김지윤, 2018), 점점 더 다양하고 활발한 관계를 맺는 대학생 시기에 겪게 되는 관계적 어려움은 현재의 적응에서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윤혜영, 강지현, 2015), 이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맺는 부모-자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최근 자녀의 또래관계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권유미, 2019). 심리적 통제란 부모가 원하는 기대수준에 따라 자녀가 행동하지 않을 때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영역에 지나친 영향을 끼쳐 간접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2002).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하게 만들어 자녀의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이종희, 2012), 한은진(2015)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

녀의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통제를 받을수록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조은주, 이은희, 2013). 이로 인해 대학생 자녀임에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전히 심할 가능성이 높고(신희수, 안명희, 2013) 대학생 자녀에게 부모를 떠나서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을 일으켜 대인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지 못하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이현경, 김정민, 2019). 이처럼 대학생 시기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더 할수록 대학생 자녀가 우울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한기백, 2014), 사회불안(이경희, 홍혜영, 2015; 한아름, 김정민 및 강슬아, 2018), 대인 불안 및 대인관계문제(류아영, 유순화 및 윤경미, 2014) 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가진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불일치에 영향을 주어 열등감과 자기비난에 빠지게 되어(한기백, 2014) 자신에 대한 평가적인 측면에 영향을 준다.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에 해당하는 자기개념명확성은 개인이 자기개념의 내용을 얼마나 분명하게 정의하고, 내적으로 안정되고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이다(백승진, 2008, Campbell et al., 1996). 자기개념명확성은 공격성, 분노, 자기애적 성향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자기개념명확성이 심리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볼 수 있다(Bigler, Neimeyer, & Brown, 2001). 지금까지는 주로 자기개념의 내용적 요소인 자존감과 관련된 많은 연구의 결과들에 집중되어 왔지만(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최근에는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인들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정현희, 오미경, 1993). Campbell(1996)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정도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self-esteem phenomena)을 자기개념명확성이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때문에 모순된 자존감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이론적으로 유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안정성이 부족한 자아존중감의 연구를 보완한(Conley, 1984),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이는 자기개념명확성(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개념명확성의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박선경(2016)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자기개념명확성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종운과 이지혜(201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매개변인인 자기개념명확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기개념 발달 및 형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자녀가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개념명확성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유사 개념인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를 통제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상을 확립해 갈 때 시행착오를 겪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온정적일 때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유고은, 방희정, 2011). 또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기개념명확성의 관계를 살펴본 백승진(2008)의 연구에서도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나 부모의 양육 태도 및 행동은 자기개념명확성을 설명하는 변인임을 볼 수 있다.

한편,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대인관계 및 일상에 잘 적응하며 스트레스 또한 잘 이겨낼 수 있지만(장재숙, 백경임, 2002),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안에서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외부 단서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정적인 정서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을 보였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명확성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일반적인 정신장애를 평가하는 데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hal, 1996) 경험회피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회피란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의 핵심개념으로 원하지 않는 감정, 생각, 감각 등의 사적 경험에 대해 접촉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억압, 회피, 혹은 그 형태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이다(Hayes et al., 1996).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의 양육에 대해 밀착통제 및 과보호를 한다고 지각할수록 회피와 충동 및 부주의를 보였고(장혜정, 2003), 이정은과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과잉 간섭 및 과잉기대와 비일관적인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대할 경우, 자녀는 정서 조절양식 중에 회피-분산 양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정소영과 김수진(201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 변인인 경험회피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정적으로 느

껴지는 개인의 경험을 회피하고 억압하는 회피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회피는 다양한 심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경험회피가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 허재홍(2014)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회피하면 대인관계나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졌고 김지선, 이소연(2018)의 연구에서도 경험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경험회피는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기 어려워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지속시키며, 의미 있고 친밀한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Holtforth et al., 2006). 또한, 만성적으로 경험회피를 사용하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외면하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기 쉬웠다(Butler & Gross, 2004; Gross & Levenson, 1997; Richards & Gross, 2003).

한편,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억제하여 불안정한 자기개념을 회피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Campbell, 1990), 이처럼 의도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회피하는 유연하지 못한 방식은 오히려 심리적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삶의 질을 낮춘다.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손효진(2016)의 연구를 보면, 자기개념명확성에서 경험회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의 자극을 크게 지각하여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회피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문혜와 이지연(2018)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기개념이 높을 때 경험회피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여 결국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외부 정보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백수희, 2002),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지게 되어 경험회피 수준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각각의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와 모를 통합하여 다루거나(김유림, 강지현, 2014; 박영신, 김의철, 2009; 이경희, 홍혜영, 2015) 모의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었고(장선영, 2013; Reed, R., Bilos, A., Wilkinson, S., & Schulte, K. W., 2009), 부, 모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여 살펴본 소수의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났다(한아름 외, 2018). 특히 최근에는 모의 사회적 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모뿐만 아니라 부의 참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정소영, 김수진, 2019),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들은 자녀가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의 심리적 통제와 모의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부와 모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에서 두 개의 매개 변인인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영향을 살펴보고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담현장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 내담자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담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부, 모의 심리적 통제를 살펴보고, 자기개념명확성을 높이고 경험회피를 감소시키는 유용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근거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1.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는 각각 단순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는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면용 설문과 온라인 설문 두 가지의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연구내용 및 설문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2020년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4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등의 지역 출신 대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6부를 제외 한 295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은 남학생 94명(31.9%), 여학생 201명(68.1%)이었고, 1학년 18명(6.1%), 2학년 69명(23.4%), 3학년 64명(21.7%), 4학년 83명(28.1%), 휴학생 43명(14.6%), 초과 학기생 18명(6.1%)이었다.

2. 측정 도구

가. 심리적 통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ber(1996)가 개발하고, 최명진(2010)이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안 및 수정한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 PCS-YSR)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표현 제한, 감정 무효화,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나의 말을 중단시키신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기분이 어떤지를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시곤 한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꾸중하실 때 내가 전에 잘못했던 일까지 다시 꺼내서 말씀하신다’ 등이 있다. Baber(1996)는 3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더 넓은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해 최명진(2010)이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933으로, 모의 심리적 통제는 .924로 나타났다.

나. 대인관계문제 척도

Horowitz 등(198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IIP-C)를 홍상황 등(2002)이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척도 단축형(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Circumplex Scale; KIIP-SC)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KIIP-SC)는 지배통제,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하위요인은 Horney의 이론을 중심으로 세 가지 영역(‘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로부터 멀어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은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지배통제, 자기중심성, 과관여는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냉담과 사회적 억제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주혜원, 배희분, 2020). 각 하위요인 별 5문항씩 총 40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이다. 문항의 예

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어렵다’ ,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다’ , ‘다른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등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s α)는 .955로 나타났다.

다. 자기개념명확성 척도

대학생의 자기개념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96)이 개발한 자기개념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 SCCS)를 김대익(1998)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본래 개발 당시 자기개념에 대한 확실성, 내적 일치성, 시간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Campbell 등(1996)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12문항으로 축약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고, 6번(내 성격의 모순적인 면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다.), 11번(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역문항으로 역채점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s α)는 .847로 나타났다.

라. 경험회피 척도

경험회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ond 등(2011)이 개발한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 AAQ-II)를 허재홍, 최명식, 진현정(2009)이 변안, 타당화한 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K-AAQ-I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0문항으로 심리적 유연성(Psychological Flexibility), 경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더라도 괜찮다’ , ‘나는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렵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경험을 회피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성, 즉 경험회피의 수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합산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적 유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AAQ-II 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s α)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34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1.0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s α)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대인관계문제, 자기개념명확성, 그리고 경험회피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모형검증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여섯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간접경로들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의 팬텀 변인(Phantom Variable)을 이용하여 개별매개효과 및 순차적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측정 도구

가.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대인관계문제, 자기개념명확성, 경험회피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왜도와 첨도의 값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 2 와 ± 7 보다 크면 정규성이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 2 와 ± 7 을 넘지 않았으므로 측정치들이 정

구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N=295)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부 심리적 통제	2.28	0.86	0.29	-0.81
모 심리적 통제	2.38	0.82	0.37	-0.74
대인관계문제	2.52	0.69	0.18	-0.33
자기개념명확성	3.15	0.68	-0.07	-0.19
경험회피	3.55	0.98	0.39	0.03

나.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 모의 심리적 통제, 대인관계문제, 자기개념명확성, 경험회피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N=295)

		1-1	1-2	3-1	4-1	5-1
1-1	부 심리적 통제	1				
1-2	모 심리적 통제	.734**	1			
3-1	대인관계 문제	.556**	.618**	1		
4-1	자기개념 명확성	-.405**	-.494**	-.596**	1	
5-1	경험회피	.395**	.483**	.640**	-.617**	1

** $p < .01$

먼저 부의 심리적 통제는 모의 심리적 통제($r = .734$, $p < .01$), 대인관계문제($r = .556$,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자기개념명확성($r = -.405$, $p < .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경험회피($r = .395$, $p < .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문제($r = .618$,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자기개념명확성($r=-.494,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 경험회피 ($r=.483,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대인관계문제의 경우 자기개념명확성 ($r=-.596, p<.01$)과 부적 상관관계, 경험회피($r=.640,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개념명확성은 경험회피($r=-.617, p<.01$)와 부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측정 변인들이 얼마나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대인관계문제, 자기개념명확성, 경험회피의 각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변인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 및 추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표의 대표성과 모형의 적합도, 추정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문항 묶음(Item Parceling) 방식을 통해 측정변인을 생성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측정변인이 3개 이상일 때 모형 적합성이 높다는 우종필(201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경험회피는 문항 묶음을 통해 생성한 각각 3개의 측정 변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 = 168.063(p<.001), df=67, TLI=.958, CFI=.969, RMSEA=.072(90\% CI: .058 \sim .085)$ 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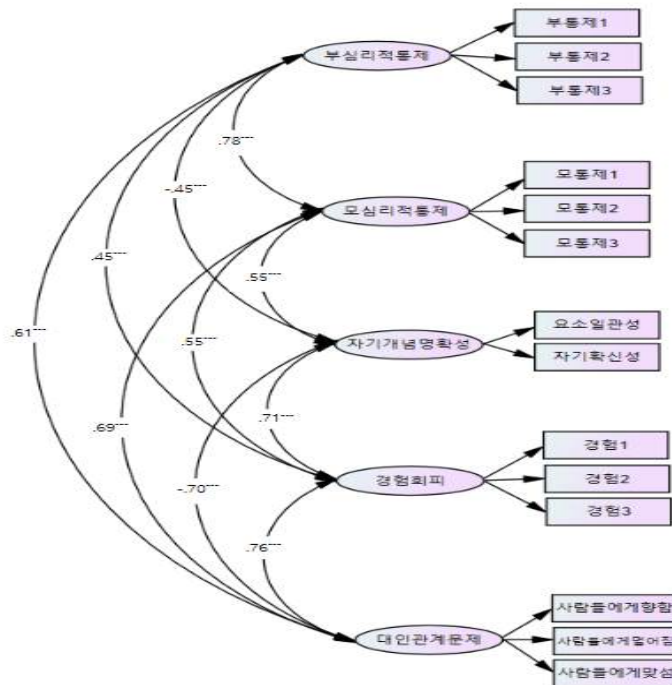
<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및 유의성 (N=295)

잠재변인	측정변수	B	β	S.E.	C.R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통제1	1	.903		
	부통제2	.934***	.880	.042	22.440
	부통제3	1.011***	.930	.04	25.236
모의 심리적 통제	모통제1	1	.841		
	모통제2	1.249***	.924	.059	21.096
	모통제3	1.192***	.922	.057	21.050
대인관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	1	.812		

	사람들에게 멀어짐	1.202***	.831	.078	15.444
	사람들에게 맞섬	.904***	.775	.064	14.215
자기개념 명확성	요소일관성	1	.880		
	자기확신성	1.046***	.862	.067	15.727
경험회피	경험1	1	.839		
	경험2	1.066***	.855	.064	16.572
	경험3	.780***	.763	.054	14.446

*** $p < .001$

〈표 3〉의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및 유의성을 보면,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 변인의 경로계수들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고, 요인부하량은 .6이상(최저: .76, 최대: .93)으로 양호하였다. 즉, 본 자료의 측정모형이 양호하므로 이후의 구조모형 검증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분석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부, 모의 심리적 통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3. 부, 모의 심리적 통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가. 부, 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 = 168.063$ ($p < .001$), $df = 67$, $TLI = .958$, $CFI = .969$, $RMSEA = .072$ (90% CI: .058 ~ .085)로 나타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부, 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N=295)

χ^2	df	p	TLI	CFI	RMSEA (90% CI)
168.063***	67	.000	.958	.969	.072 (.058 ~ .085)

* $p < .05$ ** $p < .01$ *** $p < .001$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부, 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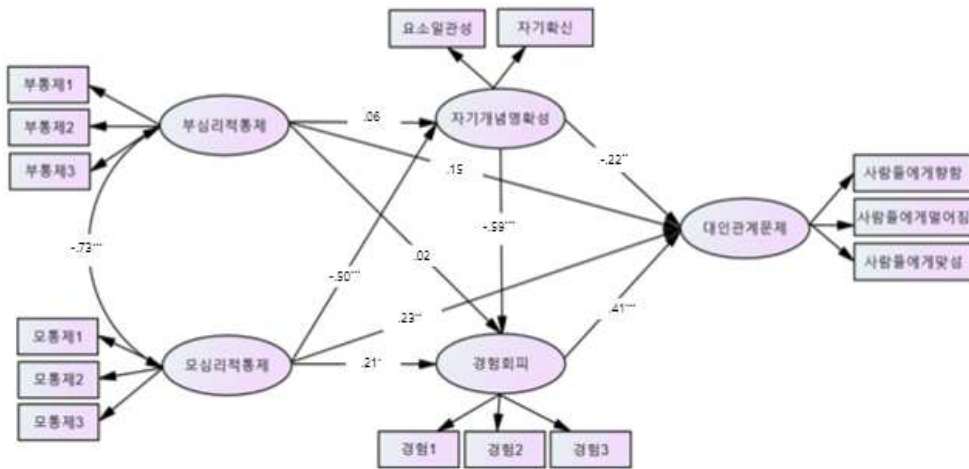
경로	B	β	S.E.	C.R.
부통제 → 대인관계문제	.106	.145	.056	1.911
부통제 → 자기개념명확성	-.043	-.060	.072	-0.6
부통제 → 경험회피	.021	.023	.077	.266
모통제 → 대인관계문제	.174	.229**	.063	2.74
모통제 → 자기개념명확성	-.375	-.502***	.076	-4.962
모통제 → 경험회피	.194	.212*	.087	2.23
자기개념명확성 → 경험회피	-.721	-.586***	.091	-7.952

자기개념명확성 → 대인관계문제 경험회피 →	-.221	-.218**	.077	-2.887
대인관계문제	.338	.411***	.065	5.204
부통제 ↔ 모통제	.548	.781***	.056	9.721

주,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대인관계문제($\beta = .229, p < .01$), 경험회피($\beta = .212, p < .05$)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자기개념명확성($\beta = -.502, p < .001$)으로 가는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받고, 경험회피 수준은 높아지며,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이 경험회피($\beta = -.586, p < .001$), 대인관계문제($\beta = -.218, p < .01$)로 가는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경험회피가 대인관계($\beta = .411, p < .001$)로 가는 경로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을수록 경험회피 수준은 떨어지고, 대인관계문제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회피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의 심리적 통제에서 대인관계문제, 자기개념명확성, 경험회피로 가는 경로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 자기개념명확성, 경험회피에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가 나타난 경로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부, 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 경로계수 검증

나. 부, 모의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29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2,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부, 모의 심리적 통제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N=295)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모통제→자기개념명확성	-.502** (-.730 ~ -.255)		
자기개념명확성→경험회피	-.586** (-.723 ~ -.451)		
경험회피→대인관계문제	.411** (.212 ~ .590)		
모통제→자기개념명확성 →경험회피	.212 (-.008 ~ .436)	.294** (.150 ~ .438)	.506** (.263 ~ .749)

	~ .437)	.461)	.751)
모통제→자기개념명확성→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	.229* (.025 ~ .430)	.317** (.175 ~ .501)	.547** (.354 ~ .745)
부통제→자기개념명확성	-.060 (-.301 ~ .176)		
부통제→자기개념명확성→경험회피	.023 (-.191 ~ .218)	.035 (-.101 ~ .180)	.058 (-.194 ~ .302)
부통제→자기개념명확성→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	.145 (-.037 ~ .314)	.037 (-.112 ~ .174)	.181 (-.011 ~ .37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개념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경험회피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beta = .294, p < .01$)와 자기개념명확성이 경험회피를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beta = .241, p < .01$)는 95% 신뢰구간(CI)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를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beta = .317, p < .01$)에서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직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개념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경험회피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와 자기개념명확성이 경험회피를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 부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를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 보다는 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부, 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각각의 매개변인이 지닌 개별 매개효과와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를 거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hantom 변인을 생성하여 Bootstrapping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주,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표 7〉 부, 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N=295)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부통제→자기개념명확성→대인관계문제	.010	.022	-.023 ~ .070
부통제→경험회피→대인관계문제	.007	.032	-.060 ~ .073
부통제→자기개념명확성→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	.011	.022	-.029 ~ .061
모통제→자기개념명확성→대인관계문제	.083*	.045	.011 ~ .190
모통제→경험회피→대인관계문제	.066*	.041	.004 ~ .165
모통제→자기개념명확성→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	.091***	.036	.039 ~ .18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개념명확성을 거쳐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B=.083, CI=.011 ~ .190, $p < .05$), 모의 심리적 통제가 경험회피를 거쳐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B=.066, CI=.004 ~ .165, $p < .05$)는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각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를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B=.091, CI=.039 ~ .183, $p < .001$)는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개념명확성을 거쳐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B=.010, CI=-.023 ~ .070), 부의 심리적 통제가 경험회피를 거쳐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B=.007, CI=-.060 ~ .073)는 95% 신뢰구간(CI)에서 0을 포함하여 개별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를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B=.011, CI=-.029 ~ .061) 또한 마찬가지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 두 매개변인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 보다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중 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는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높게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을 낮추고, 나아가 경험회피 수준이 증가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겪는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동시에 투입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는 개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의 심리적 통제보다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선행 연구(강정임, 2013; 김세동, 박미화, 2020)와 같은 맥락이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Steinberg, Elmen과 Mounts(198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에 있어 모의 역할이 부의 역할보다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김희수, 2005, 박은선, 2008, 이현숙, 조한익, 2004). 개별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비난, 감정과 생각에 대해 수용해주지 않는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좌절시키며, 부모의 기대나 요구에 미치지 못했을 때 자기비하를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마은애, 손은정, 2014)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개념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심리적인 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개념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 어려움을 적게 느낀다는 선행연구(김나영, 조유진, 2009; 김영수, 신희천, 2002; 박지환,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들은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전략인 문제대처방식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김희영, 2010; 이경민, 2006; 홍미영,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경험회피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인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행동기술을 학습하지 못하거나 적용하지 못하여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가설인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가 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는 대학생 자녀가 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 때 자녀는 낮은 수준의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비일관된 자기개념은 경험회피 수준을 증가시키고 결국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모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고(Russell, Saebel(1997)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부모 모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만(Williams & Kelly, 2005), 자녀 양육에 대한 방식과 생각이 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강정임, 2013; 서지은, 2012; 이해연,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모를 구분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고,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상대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부모 통제보다는 모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상담현장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련하여 부모의 과도한 통제 대신 적절하고 일관된 태도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리고, 대인관계문제로 어려워하는 대학생 내담자에게 명확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도록 개입함으로써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상담장면에서 많이 호소하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대인관계문제의 대학생 개인 내적인 기제에 관심을 두었으며,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어떤 경로를 거쳐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는지 살펴보았다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련된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이해와 해결에 대한 노력에 있어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 변인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즉, 상담현장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 아래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 내담자를 도울 때 내담자의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과 경험

회피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병리적 통제 양식 중의 하나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주위를 맴돌며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일명 ‘헬리콥터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다. 자녀가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의존관계를 거부하고 부모의 내재화된 영향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안정된 자아의 적응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Blos, 1979).

셋째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의 참여 정도가 커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부의 통제보다는 모의 통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나왔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부의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경험회피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자기개념명확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을 볼 때 자녀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현대에는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내담자가 심리적 독립을 이루며 자기개념을 명확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 교육과 훈련 또한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본의 인원이 적으며, 남녀의 성비가 여학생에게 편중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전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의 인원을 넓히고 남녀 성 비율에 맞게 표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연구대상자의 자기보고식 설문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혹은 의도적으로 나쁘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 혹은 면담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조사 방법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관적이지 않은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부와 모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전체만을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 중 어떤 기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지 정교화하지 못했다.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중 구체적인 방식을 다르게 지각한다는 심순구(2017)의 연구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정도가 자

녀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 모, 딸, 아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모자, 모녀, 부자, 부녀 관계가 각각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 Steingberg, 2001) 각각의 관계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정임(2013).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2012).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명료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25-846.
- 권두리, 신나나(2018).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9(3), 113-125.
- 권유미(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조유진(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16, 149-162.
- 김대익(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령(2016).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과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동, 박미화(202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4(2), 77-96.
- 김영수, 신희천(2012). 자기불일치가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2), 745-760.
- 김유림, 강지현(2014).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 종합연구, 12(4), 1-24.
- 김중윤, 이지혜(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예비초등교사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명료성의 매개효과 및 낙관성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6(9), 673-698.
- 김지선, 이소연(2018).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6(2), 365-383.
- 김지운(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경, 서경현(2013). 부모의 거부적 및 통제적 양육태도와 회피성 성격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20(11), 107-127.
- 김희수(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김희영(2010). 어머니의 통제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금혜(2011). 아동이 지각한 부의 양육행동, 아동의 성취동기 및 신체 이미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3(1), 35-49.
- 류아영, 유순화, 윤경미(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

연구, 22, 135-155.

- 마은애, 손은정(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욕구 좌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2035-2051.
- 박선경(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분노사고와 분노 표현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은선(2008). 아버지 유형이 대학생의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아버지와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동서정신과학*, 11(1), 47-63.
- 박지환, 유형근, 조용선(2013). 고등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학급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교원교육*, 29(4), 47-72.
- 백수희(2002). 자기존중감, 자기 명확성과 타인의 평가에 따른 정서적 반응.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진(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 명확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유제민, 안경미(2008). 초등학생 사회불안의 예측 모형: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675-693.
- 서지은(2012).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행동지연의 관계: 분노억제와 우울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효진(2016). 성인의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문혜, 이지연(2018).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부모의 감정불인정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개념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5, 95-119.
- 신희수, 안명희(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유고은, 방희정(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명확성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03-122.
- 우종필(2015). 구조방정식모델에서 다차원성 개념의 항목묶음 편향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44(4), 1131-1147.
- 윤아름, 장현아(2017).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2), 171-192.
- 윤혜영, 강지현(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05-423.
- 이경희, 홍혜영(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4), 101-114.
- 이정은, 조용래(2007). 걱정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일반화된 불안증상 간의 관계에서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939-961.

- 이종희(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대구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김수영(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현경, 김정민(2019). 청소년 부모긍정양육, 또래애착,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의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0(1), 95-117.
- 이현숙, 조한익(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 이혜연(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문, 박명희(2010). 위험회피 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만성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7(2), 127-146.
- 장선영(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사회불안의 관계: 아동의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정(2003).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의 유치원 초기 적응과의 관계. 아동교육, 12(2), 73-87.
- 장재숙, 백경임(2002). 어머니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8), 1-10.
- 정소영, 김수진(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4(4), 145-157.
- 정현희, 오미경(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85-95.
- 정혜진(2014).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주, 이은희(2013).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비합리적 신념의매개역할. 한국청소년학연구, 24(1), 35-70.
- 주혜원, 배희분(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2), 41-62.
- 최명진(2010). 심리적 통제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임정, 심혜숙(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추상엽, 임성문(2010).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와 문제중심대처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7(2), 309-332.
- 한경희(2012).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기백(2014).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자기존중감과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15-342.
- 한아름, 김정민, 강슬아(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

- 현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7(2), 103-115.
- 한은진(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고등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재홍(2014). 정서억제가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경험회피의 중재효과. *상담학연구*, 15(2), 595-608.
- 허재홍, 최명식, 진현정(2009). 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 2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61-878.
- 홍미영(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 진유경(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igler, M., Neimeyer, G. J., & Brown, E.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396-415.
- Bond, F. W., Hayes, S. C., Baer, R. A., Carpenter, K. M., Guenole, N., Orcutt, H. K., ... & Zettle, R. D. (2011).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 A revised measure of psychological inflexibil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Behavior therapy*, 42(4), 676-688.
- Blos, J. W. (1979). *A Gathering of Days: A New England Girl's Journal, 1830-32: a Novel*. Simon and Schuster.
- Butler, E. A., Gross, J. J., Philippot, P., & Feldman, R. S. (2004). Hiding feelings in social contexts: Out of sight is not out of mind. *The regulation of emotion*, 101-126.
- Butler, E. A., Gross, J. J., Philippot, P., & Feldman, R. S.(2004). *The regulation of emotion*,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39-549.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y,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onley, J. J. (1984). The hierarchy of consistency: A review and model of longitudinal findings

- on adult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self-opin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11-25.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s: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1), 95-103.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152-1168.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oltforth, M. G., Grawe, K., & Castonguay, L. G. (2006). Predicting a reduction of avoidance motivation in psychotherapy: Toward the delineation of differential processes of change operating at different phases of treatment. *Psychotherapy Research*, 16(5), 639-644.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83-300.
- Reed, R., Bilos, A., Wilkinson, S., Schulte, K. W., (2009).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ustainable rating tools. *Journal of sustainable real estate*, 1(1), 1-22.
- Richards, J. M., Butler, E. A., & Gross, J. J. (2003). Emotion regul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cognitive consequences of concealing feeling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5), 599-620.
- Rogers, K. N., Buchanan, C. M., & Winchell, M. E. (2003).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adjustment in differing parent/adolescent dyad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4), 349-383.
- Russell, A., & Saebel, J. (1997). Mother-son, mother-daughter, father-son, and father-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2), 111-147.
-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 Steinberg, L., Elmen, J. D., & Mounts, N. 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6), 1424-1436.
- Teyber, E. (2000).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A relational approach*. Stamford, C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Sage Publications, Inc.

Williams, S. K., & Kelly, F. D. (2005). Relationships among involvement, attachment, and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ce: Examining father' s influ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2), 168-196.

〈Abstract〉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

Ahn, Ji-Young · Hong, Hye-Young

Dongdaemun-gu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for Youth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295 data samples were collected from college students in Seoul, Gyeonggi-do,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etc. and measured by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PCS-YSR),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Circumplex Scale(KIIP-SC), Self-Concept Clarity Scale(SCCS), and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II(AAQ-II). SPSS 21.0, AMOS 21.0 were used for data analysi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mediating effects. The result of this study as below. First of all,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Problems, Experiential Avoidance and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Concept Clarity. In addition, Self-Concept Clarity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Experiential Avoidance, and Experiential Avoida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ly, Self-Concept Clar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ird, Self-Concept Clar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had significant double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nly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mong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se findings proved that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elf-Concept Clar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are variables that Interpersonal Problems, and also clarified that doubl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Also, among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the Paternal and Maternal, the Maternal was relatively greater simulated effect was shown. Final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terpersonal Problems, Self-Concept Clarity, Experiential Avoidance

한부모 다자녀가족을 위한 가정방문 음악중재 사례

조희연 · 이미아 · 문소영*

조이언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 이음예술심리상담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한부모 다자녀가족이 가정방문 음악중재를 통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탐색한 단일사례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S시 교육청 교육복지대상인 여성 한부모 다자녀가족으로 어머니, 초등학교 6학년 남아, 4학년 여아, 2학년 남아로 구성된 가족이다. 연구는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5일까지 주 2회 회기당 60분씩, 총 8회기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Stake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회기별 축어록과 일지 등을 통해 치료적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가족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스스로 발견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성장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경험의 의미로는 3개의 범주와 9개의 중심주제가 드러났다. 첫째, '우리 가족의 염원'에서는 불편한 관계 토로, 내 마음 알아주기, 함께하는 행복, 둘째, '기다려지는 음악 시간'에서는 감정 해소에 대한 갈망, 집으로 찾아오는 설렘, 음악으로 소통하는 풍요로움, 셋째, '가족의 재해석'에서는 그래도 우리 가족, 엄마의 수고와 사랑 확인, 응집과 변화의 힘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가정방문 음악중재 서비스를 통해 한부모 다자녀가족의 가족기능과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성장 변화를 확인하고, 가정방문 음악중재에 관한 하나의 적용사례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방문 음악중재, 질적사례연구

* 교신저자: 문소영(symoon@mju.ac.kr)

■ 게재 신청일 : 2022년 7월 10일 ■ 최종 수정일 : 2022년 8월 15일 ■ 게재 확정일 : 2022년 8월 18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1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혼율 및 미혼모 증가와 함께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위축으로 자신감이 낮아지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학업 성취, 생활 태도 등에서 부적응 현상을 보일 수 있다. 학령기 자녀가 겪는 어려움 중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모가족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혼란과 역경 중 하나이다(최미숙, 임효연, 2022). 그러나 한부모-자녀가 함께 여가활동을 많이 하면 의사소통 촉진은 물론이고 응집력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여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최미숙, 임효연, 2022).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최근 2년여간 온 국민은 집 밖으로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며 자유롭지 못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교육부에서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함에 따라 학령기 자녀를 둔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것을 예상할 수 있다(최하영, 김민영, 2020). 한부모가족의 여가활동 또한 주로 외식, 운동 및 나들이, 쇼핑, 영화 및 공연관람, 여행,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관람 등 집 밖에서의 활동들을 꼽았으나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자녀와 함께 보내는 여가활동 수준의 감소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이에 더해 학생들은 전면 등교중지와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가운데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갈등 관계에 놓이는 빈도가 잦아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최준섭, 2021). 부모와 자녀 모두 일상 업무와 학업은 물론, 여가를 위한 외부 활동이 극심히 줄어들고 상담 센터 등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기 위한 기관 방문까지도 극도로 줄어들게 된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최근 관계부서에는 교육청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학교 기반의 교육복지로써 아동·청소년 및 가족 상담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노력하고 있다. 교육복지대상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지지가 부족하고 가정, 학교,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와 실패 경험이 누적됨으로써 의사표현 및 감정 표현 능력이 미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결여되어 소극적 성향의 기질이 형성될 수 있

고 사람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할 수 있다(정은희, 2013).

이처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가족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다중시설에서의 모임과 대면이 어려운 가운데, 학생들의 학업뿐 아니라 시급한 상담 지원까지 중단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백을 줄이고자 S시 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 대상 아동을 선별하여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가정방문 치료서비스는 가정방문 형태로 치료나 관리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개인의 거주 공간에서 건강상 문제, 그로 인한 일상생활에 초래되는 문제들에 직접적인 도움 제공 및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김민수, 2011).

가정방문 음악치료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을 했을 때 효과적이며(김주은, 2019), 각 가정의 문화 패턴과 경제 수준을 인식하고 교류 및 적응도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점이 있다. 또한 치료사는 가정방문을 통해 가족의 역량과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빠른 치료적 개입의 장점이 있다(류인미, 김광웅, 2017).

내담자가 치료실에 상담을 받으러 오면 치료자는 내담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내담자의 ‘지금 그리고 여기(here and now)’ 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가정방문 치료사는 참여자로서 가족이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고, 가족의 행동과 환경을 활용함으로써 치료를 더 강하게 촉진할 수 있다. 각 가정의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치료를 구조화하고 그에 따라 치료적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 기관치료와의 다른 점이다(Reiter, 2000).

가족지원은 단순히 가족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들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다(노진아, 홍은숙, 이미숙, 박현주, 정길순, 2011). 영국의 교육 복지서비스는 가족지원 사회복지 서비스로 가족, 학교, 사법당국, 지방교육청·지자체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손병덕, 2008). 호주에서도 기관 간, 부서 간, 또는 학제 간 협업을 통한 개별적 음악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맞춘 가정방문 음악치료 서비스인 ‘Sing & Grow’ 프로그램을 8주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Williams, Teggelove & Day, 2014).

가족음악치료는 가족이라는 틀을 가지고 접근한 음악치료 모델로 내담자 한 사람의 변화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변화시킴으로써 통합적, 근원적인 치료를 지향한다. 치료적 음악활동을 통해 개인을 포함한 가족 간의 불균형적 관계 패턴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내적 평화와 자기실현을 달성하도록 하는 해결 지향

적 가족 중심 음악치료 모델이다(김종인, 2010).

한유진과 서종미(2008)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상호작용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집단음악심리치료는 역동성과 그룹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속감, 성취감, 책임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냄과 동시에, 문제가 되었던 가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이동은, 2008). 가족음악치료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불균형적 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가창, 감상, 연주 등의 음악 활동을 치료적으로 활용한다(김종인, 2010).

치료 안에서 음악은 가족의 의사소통에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갈등 상황에서도 모-자녀가 음악이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음악적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하고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Magill & Slivka, 1986). 가족 즉흥연주는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낮추며 가족응집력을 강화한다(서경희, 2015). 톤차임 앙상블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집단 내 소속감을 경험하도록 하며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홍민주, 순진이, 2017). 가족과 함께하는 노래 활동은 무의식적 기억 및 사고를 이끌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통찰과 서로의 감정을 나눔으로써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공감과 경청, 가족 간의 이해를 돕게 한다(도정은, 2010).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치료적 기능을 한 가족음악중재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국내의 가정방문형 음악중재 적용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은,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치료적 음악활동을 통한 가정방문 음악중재가 한부모 다자녀가족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방문 음악중재에 참여한 가족의 회기별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정방문 음악중재에 참여한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부모 다자녀가족이 가정방문 음악중재 과정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 변화와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질적사례연구

는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내재 되어있는 의미의 심층적인 해석을 통해 특정 사례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한다 (Creswell, 2013).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S시 교육지원청 관내 교육복지대상 중,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여성 한부모 다자녀가족이다. 어머니(38세)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초등학생 세 남매(13세, 11세, 9세)를 키우며 분식집에서 일한다. 작은 체구로 혼자서 세 남매를 양육하며 일하는 것 자체도 매우 버거운데다, 평소 싸움이 잦은 세 남매 통제와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더욱 커지는 훈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첫째 아들과 둘째인 딸 사이의 쉬지 않는 빈번한 부딪힘으로 인한 빈번한 감정적, 신체적 다툼을 중재하기에 매우 지친 상태였으며, 어머니의 훈육을 잘 따르지 않는 세 남매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가 농후하였다.

첫째는 교육복지대상 아동으로, 학업 성취 능력은 높은 편이나 담임 교사로부터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신의 영민함을 동생들과 비교, 과시하여 정서 행동에 매우 과격함을 보이고 특히 매사 여동생의 모든 언행에 핀잔과 방해 등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관여하였다.

둘째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가벼운 장난 정도는 웃으면서 받아주거나 넘기는 편이지만, 오빠가 자신을 남동생 대하듯 과격하게 행동하는 면에서 매우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첫째와 둘째 사이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포기한 듯 방관하며, 양육자로서 권위 있는 중재 개입의 어려움을 보였다.

막내아들인 셋째는 장난기가 넘치고 웃음이 많으며, 어머니에게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자주 하는 등 세 남매 중 비교적 안정된 정서를 보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5일까지 주 2회, 회기당 60분씩, 총 8회기를 실시하였다. 집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 간의 역동과 상호작용을 관찰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내담자가 살고 있는 공간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는 찾아가는 가정

방문 치료는 기관치료와 차이가 있으므로(Reiter, 2000), 프로그램은 참여자 집 거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필요한 악기와 도구들은 연구자가 직접 준비해서 가정방문 하였고, 가족 구성원 간 역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음악 활동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가정방문 음악중재를 경험한 한부모가족을 하나의 사례로 놓고, 음악중재가 일어나는 시간과 현장을 연구자료로 채택하였다. 자료는 매회기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행동반응에 관한 현장 관찰 기록, 일지, 영상 녹화, 녹음, 결과물, 소감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회기별 의미 있는 치료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매회기 행동, 대화, 표정 등 가족 간의 상호작용 반응과 음악적-비음악적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메모하였다. 명확한 분석 자료를 위해 음악중재 종료 후에는 당일에 바로 영상과 사진, 결과물, 일지를 재점검하며 관찰 기록을 정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Creswell(2013)이 제시한 질적 사례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의 조직화, 읽기와 메모하기, 자료를 코드와 주제로 기술, 분류, 해석하기, 자료의 제시와 시각화로 진행하였다. 또한 녹취자료를 전사하여 반복하여 읽고, 가족 역동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정리하며 유의미한 내용을 기술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작은 의미 단위로 추출하였고, 코딩작업을 통해 통합하는 단계를 거쳐 주제 도출을 하였다. 본 연구는 맥락적 회기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가정방문 음악중재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의미를 분석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들은 S시 교육지원청 추천대상자 가족 중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가족 4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자는 중재 이전에 연구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확보하였고, 미성년인 자녀들은 보호자 동의하에 서면 동의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익명성과 참여 철회 의사의 권리를 설명했으며, 세션 과정이 녹화 및 녹음된다는 점을 알렸다.

5. 가정방문 음악중재 프로그램

본 연구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불균형적 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가창, 감상, 연주 등의 음악 활동을 치료적으로 활용한 가족 중심 음악치료(김종인, 2010)와 선행연구(오선화, 황은영, 2019)를 참조하여 가정방문 중재 기법을 적용하였다. 가정방문 음악중재의 목표는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지지하는 것이다. 가족 간의 갈등 문제에 관해 스스로 분석하고 그 해결점을 수행하여 긍정적 정서로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매회기 후반에는 가족 구성원들 스스로가 발견한 가족 상호작용의 문제점에 따른 가족선언서(김종인, 2010) 이행과 함께 가족 내 규칙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가족들 스스로가 정한 자발적인 해결 과제를 시행함으로써, 회기와 회기의 공백을 채워 일상생활에서도 가족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음악중재는 매회기 톤차임 연주와 더불어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적용하였다. 즉흥연주의 활용은 참여자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된다(Wigram, 2004). 처음 연주하는 톤차임 연주법을 돕기 위해 풍선을 활용한 즉흥연주를 시도하였고, 풍선의 다양한 색깔과 모양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박인이, 2002).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주요 음악으로 희망적 소재의 영화음악 삽입곡인 ‘Over the Rainbow’를 선곡하였으며, 도약을 갖춘 멜로디와 바이올린 선율의 부드럽고 느린 프레이즈는 풍선 띄우기의 신체 흐름을 지지하고 비언어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노래심리치료 기법 중 하나인 송라이팅은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윤선영, 강경선, 2016). 가사토의는 노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으로 토의 과정 안에 치료사의 질문을 통해 노래의 의미와 내담자의 삶을 연관 지어 심화할 수 있다(Grocke & Wigram, 2011). 가사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규명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감정과 문제에 대해 공감과 동일시를 경험할 수 있다(정현주, 김동민, 2010). 이를 위한 곡으로는 가요 ‘풍선’을 선곡하였다. ‘풍선’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린 곡으로(교육부, 2022) 아동을 포함한 가족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곡이다. 이 노래는 긍정적 가사의 내용을 담은 2박 계열 곡으로 $J=144$ 빠르기의 발랄한 멜로디를 갖춘 장조곡이다. 빠른 템포의 장조 음악은 긍정적이고 밝은 정서 반응을 유발한다(이소정, 2000). 선곡된 음악은 연구 참여자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도록 감상과 연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합주의 완성도를 높여 성취감 및 가족응집력을 도모하기 위해 반복 적용하였다.

음악 감상은 가족 구성원들 서로가 공감, 배려, 수용, 인정함으로써 상호존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Joanna Booth의 의해 창안된 음악, 그리기, 이야기를 결합한 기법(music, drawing and narrative: MDN)으로 구성하였다. 이 기법은 치료적 음악 감상 중 하나로 그룹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Grocke & Wigram, 2007). 그림은 난화로 표현하였으며 음악을 감상하는 참여자는 음악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경험한 감정을 난화로 표현하게 된다(권오선, 오한나, 2021). 또한, 표현된 난화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봄으로써 이야기 속에서 자발적 탐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험 안에서 정서적 안정과 이야기 구성을 풍성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결과물을 완성했을 때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곽승주, 전순영, 2013).

음악 그림 이어 그리기는 음악심상기법에 기반한 것으로, 음악을 감상하면서 경험한 의식과 무의식의 심상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먼저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앞서 그려진 그림에 자신의 음악적 경험과 심상을 이어서 그리는 활동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그림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써 각각 이미지들 가운데 구체적인 형상이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그림 속에서 발견된 연상은 무의식적으로 내담자 자신의 정서적인 내면을 투사시킨 자료로 언어화하여 이야기로 전환하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김현민, 권현용, 2015).

가정방문 치료는 각 가정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치료적 환경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치료자의 융통성이 요구되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분석 기회 등이 생긴다는 점에서 기관에서의 치료와는 다른 치료적 태도를 요구한다(류인미, 김광웅, 2017). 이에 따라 참여 가족의 이슈를 반영한 주제로 각자 다양한 악기를 사용한 즉흥연주 파티를 진행하였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음악으로 더욱 응집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음악 심상을 통한 클레이 푸드 만들기 활동을 계획하였다. 음악 감상을 통한 회상은 궁극적으로 내담자 스스로 자유롭게 성공적 감동을 재경험하여 과거를 현실화시킨다(김종인, 2010). 회기 종결을 하며 가렌다 앨범을 만들어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을 회상하고 순간을 기념하였다. 이는 음악을 창조적인 예술 매체와 결합한 기법으로 내담자가 자기표현을 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다양성을 허용하여 오래 지속되는 추억과 개인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Grocke & Wigram, 2007).

이를 위한 회기별 세부 목표는 <표 1>과 같다.

〈표 1〉 가정방문 음악중재 프로그램

회기	목표	활동 내용	음악 선곡
1	- 참여 기대 및 동기유발 - 가족 인식 탐색	- 라포형성을 위한 풍선 컬러로 자기소개 하기 - 소망하는 가족 탐색을 위한 음악과 심상	●풍선(가요) ● Over The Rainbow (영화 ‘오즈의 마법사’ 삽입곡)
2	- 경청, 규칙 - 상호작용 문제 발견	- 풍선을 활용한 톤차임 즉흥연주 - 톤차임 합주(매회기 반복) - 가족선언서 미션 다집판 (Don't touch me)	● Over The Rainbow (영화 ‘오즈의 마법사’ 삽입곡)
3	화합 타인 수용 의사소통	- 미션 실천 점검 및 평가 - 가족의 상호작용을 위한 음악 난화	● Over The Rainbow (영화 ‘오즈의 마법사’ 삽입곡)
4	-가족지지	즉흥연주로 축하하는 생일파티	●Salut d' amour (Classic, Vn., Ver. / Elgar) ●Happy Birthday To You (미국 동요)
5	-공감, 배려 - 인정	- 미션 실천 점검 및 평가 가족의 무의식 탐색을 위한 음악 이어 그리기	● Salut d' amour (Classic, Vn., Ver. / Elgar)
6	강점 칭찬	- 송라이팅 가사 토의	● Salut d' amour (Classic, Vn., Ver. / Elgar) ● Salut d' amour (Classic, Vn., Ver. / Elgar) ●Typewriter (Classic / Leroy Anderson) ●Dance of the Sugar Plum Fairy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中 / Tchaikovsky)
7	- 응집력 - 유대감	- 미션 실천 점검 및 평가 -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 제공을 위한 음악과 심상	●Who's Afraid Big Bad Wolf (애니메이션 ‘The Three Little Pigs’ 주제곡 / Frank Churchill)) ●Aux Champs-Elys é es (프랑스 샹송)
8	자기표현 소속감	- 가사토의, 송라이팅 - 공명 실로폰 합주	●풍선(가요)

Ⅲ. 연구 결과

1. 가정방문 음악중재 회기별 경험

가. 1회기: 가족 탐색-소망하는 가족

가정방문 음악중재 프로그램 1회기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라포형성 및 기대감과 동기유발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또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 방법을 관찰하며 가족 관계를 탐색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정방문 첫날, 세 남매는 연구자의 방문을 기다려 환대하였으며 어머니는 다소 수줍은 듯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맞이하였다. 가족 인식을 탐색하는 음악 심상은 컬러 시각화를 유도하여(Grocke & Wigram, 2007) 소망하는 가족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자 편안한 자세로 감상하도록 유도했을 때, 소파나 바닥에 눕거나 다리를 펴고 벽에 기대어 앉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구성원들이 표현한 색채는 눈에 띄게 어두운색도 있었지만 밝은색의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에 대한 인식이 희망적으로 해석되며, 희망은 강렬한 욕구가 낳은 부산물들이고 집단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다(김종인, 2010).

음악 감상 후 소망하는 가족에 대한 토의로 어머니는 첫째와 더욱 친근하게 지내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고, 세 남매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희망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남매간에는 활동 중에도 빈번한 갈등이 일어났지만,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잦은 갈등 속에서도 토의 내용을 통해 행복한 가족, 그리고 서로가 친근하고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가족음악중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소망하는 가족의 메시지를 담은 풍선을 한 마음으로 띄웠을 때는, ‘Over the Rainbow’의 도약을 갖춘 멜로디와 바이올린의 선율의 부드럽고 느린 프레이즈가 풍선 띄우기의 신체 흐름을 지지하였다.

나. 2회기: 상호작용 문제 발견과 가족선언

2회기에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여 ‘Over the Rainbow’ 음악을 기반으

로 톤차임 앙상블을 실시하였다. 합주는 두 명 이상의 그룹 연주 활동으로, 연주를 통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 해소를 할 수 있다(김하얀, 강경선, 2015). 본격적인 톤차임 앙상블 연주 이전에, 톤차임을 편안하게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풍선을 활용한 톤차임 즉흥연주를 실시하였다. 가족 구성원들은 은은하고 영롱하게 울려 퍼지는 톤차임 소리를 신기해하며 호기심을 보였으나, 남매 간에는 규칙을 지키지 않고 서로 먼저 연주하려 말다툼과 몸싸움이 일어나 풍선을 활용한 톤차임 연주를 통해 연주 순서 규칙을 지키도록 중재하였다. 활동 중에 일어났던 세 남매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don’ t touch me’ 가 가족선언서로 정해졌다. ‘가족선언서’란 개인에게 자기선언서가 있는 것처럼, 가족구성원들이 바라는 가족상, 새로운 가족 규칙들, 새로운 가족들의 결심 등이 포함된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가족을 위한 행동강령 또는 규범, 경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김종인, 2010). 가족의 합의가 담긴 가족선언서를 통해서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일상생활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고, 주중에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세 남매가 가족선언서를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3회기: 음악을 통한 의사소통

3회기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수용하고 인정하며, 상호존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음악과 그림, 이야기를 결합한 기법(music, drawing and narrative: MDN)으로 구성하고 그리기는 난화로 표현하였다. 난화 기법은 심리·정서·신체적으로 이완할 수 있도록 돕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손과 팔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방해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내면의 감정이 외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음악의 분위기가 전환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렸는데, 세 남매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워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난 회기 가족선언서 미션인 ‘don’ t touch me’ 과제는 각자 점수로 확인하였는데 세 남매는 자신에게 관대한 점수를 주었고, 다른 남매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 중 10점 정도라고 낮게 주었다.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미션 점수를 약 50점 정도로 잘 지켜지는 않았다고 평가하였으나, 가족 구성원들이 과제를 인식하여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 활동 중간에 첫째가 지속적으로 둘째 동생의 그림을 망치거나

짓곳은 편잔을 주는 등 다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으나, ‘don’ t touch me’ 규칙을 상기시키며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난화 속에서 숨은 이미지들을 찾아서 가족 이야기를 구성하였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가족의 험난한 여정이 담겨져 있었지만 마무리에서 “다시 행복한 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라며 긍정적인 내용의 맺음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 가족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

라. 4회기: 뮤직 생일파티를 통한 가족지지

4회기에는 특별히 셋째의 생일을 맞아 ‘생일파티’ 를 주제로 가족 구성원들이 화합하고 축복할 수 있는 즉흥연주를 계획하였다. 연구 참여자 가족의 이슈에 따라 셋째의 생일을 맞은 방문 날 간단한 생일파티를 한 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다양한 악기를 사용한 즉흥연주로 음악 메시지 선물하기를 진행하였다. 가족 구성원들은 준비된 너트벨, 터치벨, 윈드차임, 레인스틱, 카바사, 아고고벨, 쟼베 등 다양한 악기에 호기심을 갖고 흥미롭게 탐색하며, 생일의 주인공인 막내 동생에게 연주해 줄 악기를 선택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음악 선물을 받은 셋째는 표정과 몸짓에서 큰 기쁨과 행복의 역동적 반응을 보였고, 남매 사이에 평소 짓곳은 장난과 부정적 언어 소통에서 전환된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언어 소통을 경험하였다. 톤차임 연주는 풍선을 활용한 연주를 확장하여, 우연히 완성되는 멜로디를 아름답게 감상하고 연주의 종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랑의 인사’ 를 연주할 때는 도전적인 자세로 완성도 있는 연주에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마. 5회기: 의사소통 기능 강화와 수용

5회기에서는 보다 확장되고 심도 있는 공감과 배려, 상호작용 및 응집력을 목표로 음악 이어 그리기를 계획하였다. 둘째가 그린 그림에 첫째의 방해가 있어 둘째의 감정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 어머니는 그동안 경험했던 가족의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중재 체시를 하며 갈등 상황을 주도적으로 정리하였다. 어머니는 세 남매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자라는 것에 대해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바. 6회기: 강점 칭찬을 통한 애착 표현

6회기는 노래심리치료 기법 중 하나인 송라이팅 활동으로 서로의 강점과 칭찬을 가사로 만들어 노래 부르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어머니는 ‘멋지고 착해져야 하는 첫째, 예쁘게 자라주는 둘째, 귀염둥이 우리 막내 셋째, 우리 가족 지켜주는 나’ 로 개사하였다. 첫째는, ‘착하고 다정하신 엄마, 아마 예쁘고 못생긴 여동생, 잘 먹는 귀염둥이 남동생, 멋지고 공부 잘하는 나’ , 둘째는 ‘예쁘고 가족 사랑하는 엄마, 멋지고 괴롭히는 오빠, 아무거나 먹어버리는 남동생, 미술 잘하는 나’ , 그리고 셋째는 ‘예쁘고 사랑 많으신 엄마, 멋지고 사랑스러운 형, 예쁘고 사랑스러운 누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나’ 로 개사 되었다. 아직은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의 가사가 나타나기도 하나 평소 비난형 언어 소통이 현저히 감소 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밝고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으며, 송라이팅 내용과 진행 분위기를 종합해 볼 때 세 남매의 엄마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사. 7회기: 가족의 긍정자원 회상과 규칙에 대한 습관 형성

7회기에는 종결을 앞둔 회기로서 가족 구성원들이 음악으로 더욱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음악 감상을 통한 클레이 푸드 만들기 활동을 계획하였다. 각 음악적 특징이 강화된 다섯 곡의 음악을 감상하며, 음식에 대한 심상을 떠올리게 하여 서로의 느낌을 풍성하게 나누었다. 또 나들이 때 함께 먹었던 도시락을 회상하며 추억을 나누는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성공 경험 회상’ 을 뜻한다. 주제에 따른 음악 회상 작업을 내담자가 이미 성취한 과거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고 이전부터 갖고 있던 긍정자원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 감상 후에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필요의 의미를 내포한 클레이 요리를 각자 정성껏, 정교히 만들어 대접하였다. 엄마를 위한 음식, 엄마와의 뷔페, 우리 가족의 피크닉 등의 제목을 붙인 작품으로, 함께하는 나들이 도시락과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선물해 주고 소감을 나눔으로, 가족 구성원 간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세운 미션 실행 및 토론 내용 안에서, 규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는 가족들 스스로의 평가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활동 중에는 가족 간에 마찰이 일 때 마다 ‘don’ t touch me’ 를 가족이 정한 동작과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미션 규칙이 자발적이며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 8회기: 음악 안에서 일체 된 소속감

8회기는 종결 회기로써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풍선’ 가요를 통한 가사토의와 송 라이팅 활동을 구성하였다. 또한, 톤차임과 공명실로폰을 활용하여 각자 마지막 회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 음악 안에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초기 활동 시 다소 무질서한 경쟁으로 연주하려던 양상에서 연주 순서를 정해 서로 배려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연주에 대해 공감하며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화합과 긍정적인 소통을 경험하였다.

‘풍선’ 노래의 가사는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하늘 높이 나는 사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뛰어 놀고 싶어... 왜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게 될까?... 잊었던 나의 꿈들과 추억을 가득 싣고’이다. 이를 사용한 가사토의 내용으로 어머니는 과거의 즐겁고 행복했던 초등학교 시절의 공기, 고무줄 놀이 등의 추억을 떠올리며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밝게 웃는 표정과 극도의 행복 상태(blissful)를 경험하는 반응을 보였다. 세 남매는 주로 하늘을 날고 뛰어놀고 싶은 가사에 공감하였고 아프리카, 아마존, 남극, 러시아, 우주 등 자기만의 세계로 여행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여 노래 안에서의 여정을 경험하였다.

톤차임과 공명 실로폰 연주에서는 서로 연주하고 싶어하는 음들이 있어 의견을 조율하고 충분히 연주하도록 중재하였다. 회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주에 나눈 각 가족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를 반영한 헬륨 풍선을 증정하였다. 이어서 플라로이드로 촬영을 한 후, 가렌다 앨범을 만들어 그동안 함께 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고 기념하였다. 톤차임 연주 모습 및 음악 심상의 클레이 작품 등을 담은 촬영을 매우 좋아하고 시종일관 웃으며 서로 즐겁게 촬영해 주었다. 어머니는 세 남매가 과도한 스마트 폰 게임만 했었는데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에 매우 큰 만족을 한다고 하였다. 어머니와 세 남매가 함께 경험하는 음악중재 시간이 무척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소감을 대화와 글로 나누었다.

2. 가정방문 음악중재 경험의 의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교육지원청 추천을 받은 한부모 다자녀 아동의 가족들이 가정방문 음악중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어떠한 의미를 경험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을 통해 3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각 주제와

의미 단위는 아래와 같다.

〈표 2〉 가정방문 음악중재 경험의 의미 분석 결과

범주	하위주제	의미 단위
우리 가족의 염원	불편한 관계 토로	한시도 조용할 틈이 없는 싸움/만나기만 하면 몸 싸움/이해되지 않는 가족/학교에서도 맨날 놀리는 오빠
	내 마음 알아주기	사랑하는 엄마 마음 알려주기/스마트 폰 그만 하기/큰 아이의 무게감/사이 좋은 남매기간에 대한 바람
	함께하는 행복	엄마랑 친하게 지내기/친하고 행복한 남매 되기/무슨 일이든 가족이랑 상의하기/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족/음악 난화를 통한 해피엔딩 스토리
	감정 해소에 대한 갈망	피어나는 나의 정서/뛰어놀고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아마존으로의 여행/나만의 세계 탐험/답답한 몸과 마음/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회상
기다려지는 음악 시간	집으로 찾아오는 설레임	오늘에 대한 기대/치료를 맞이하는 놀이/집안에서 의미있는 시간/찾아와주는 기쁨/서프라이즈 홈파티에 대한 감사/종결에 대한 아쉬움
	음악으로 소통하는 풍요로움	신기한 악기들에 대한 호기심/재미있고 즐거운 연주/빨리 듣고 싶은 음악/음악으로 축하하는 감동의 생일파티/완성도 있는 앙상블에 대한 성취와 만족감
가족의 재해석	그래도 우리는 가족	티격태격 하지만 우리는 남매/가족을 위한 요리/아이들은 나의 보호막/이어그리기를 통한 하나 된 느낌/작품의 제목은 '너, 나, 그리고 우리' /우리 가족의 피크닉/음악 심상을 통한 가족의 추억회상
	엄마의 수고와 사랑 확인	엄마 먼저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착하고 다정하신 엄마/예쁘고 가족 사랑이 많으신 엄마/엄마를 위한 클레이 요리/엄마와의 뷔페
	응집과 변화의 힘	자신이 맡은 역할과 순서 규칙을 지키는 연주/완성도 있는 톤차임 합주/부정적 언어 감소와 지지적 언어의 증가/스스로 지키는 가족선언서

가. 우리 가족의 염원

(1) 불편한 관계 토로

연구 참여자들은 음악중재를 통해 가족 간의 현재 역기능적 상호작용들을 발견하고

토로함으로 서로에게 얼마만큼 불편감을 끼쳤으며, 이로 인한 상호 간의 스트레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다. 동시에 가족들을 향한 소망과 긍정적 소통의 욕구를 확인하였다.

(2) 내 마음 알아주기

음악 중재 회기 중 어머니는 세 남매를 깊이 사랑하는 엄마 마음을 알아줄 것과 스마트폰 과사용에 대한 당부를 호소하였다. 남매간의 역동은 첫째가 짓궂은 방해를 자주 하여 특히 성별이 다른 둘째가 많은 불편감을 보였으며, 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관찰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듣는다고 하였다.

“오빠는 맨날 나보고 못 그린다, 못 생겼다 놀려요. 진짜 싫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까지 계속 놀려요.” (둘째)

서로에 대한 언행들이 얼마나 불편감을 주는지를 발견하고 이를 위한 해결점을 모색하였다.

(3) 함께하는 행복

여러 불편감과 부딪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본질적인 염원은 친밀한 관계와 소통으로 나타났다. 풍선을 활용한 음악 중재 이후 가족에 대한 바람을 적으며 엄마랑 친하게 지내기, 남매들끼리의 친밀감, 행복, 무슨 일이든 가족이랑 상의하기, 우리 가족 서로 믿고 의지하기 등으로 가족 관계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였다. 또 음악 난화를 통한 스토리 구성에서 험난한 위기를 겪은 여행 이후, 온 가족이 결속되어 안전하게 귀가하는 해피엔딩 스토리로 종결되었다.

“처음에 그리려고 한 거는 슬픈 괴물이 아닌데 좀 슬픈 이상한 괴물이 됐어요. 동을 싸서 자동차를 못 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애벌레들하고 그 괴물이 나타나서 집이 부서졌어요. 누군가 엑스 표시를 해서 부श्य. 운석이 막 떨어졌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나무를 줬어요. 사과하는 사과나무예요... ‘미안해’ 라고 말하는 사과나무. (중략) 행복한 집인데 지금 우주에서 집을 망가뜨리러 외계인이 왔어요...이거는 풍선인데 강아지가 타고 날

아가고 있어요. 외계인과 싸워서 이긴 다음 KTX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음악 난화 스토리 중)

나. 기다려지는 음악 시간

(1) 감정 해소에 대한 갈망

‘풍선’ 노래의 가사토의에서 가족 모두 ‘뛰어놀고 싶어’, ‘하늘을 날고 싶어’에 집중하였다. 이는 시기적으로 팬데믹 상황이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만의 가장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자유롭게 이제 뛰어놀고 싶은 마음...그래서 충분히 첫째와 둘째가 그렇게 또 누릴 수 있는 시기니까(나이) 충분히 더 많이 뛰어놀고 하면 좋겠어요” (어머니)

세 남매 또한 세계 각국과 자신만의 세계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함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정서 정화를 이루었다.

(2) 집으로 찾아오는 설레임

학교나 센터가 아닌 가정에서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것은 참여 가족에게 설레고 신선한 경험이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외출은 물론, 홀로 세 남매와 함께 이동해야 하는 어머니의 체력적인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토요일 집에만 있으면 맨날 게임만 하고, 또 이걸 제재하느라 더 큰소리가 나고 난리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니 저희가 정말 감사하죠. (회기 초기)...너무 아쉽고,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회기 말)” (어머니)

4회기에는 가족의 특별한 의미 있는 행사일에 맞추어 중재 계획을 세웠다. 셋째의 생

일을 맞아 서프라이즈 뮤직 홈파티를 제공함으로 각별한 추억과 정서적 만족감을 더욱 증진 시켰다. 가족들은 여러 타악기를 사용하여 소리 축하 카드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주인공인 셋째는 평소와는 다른 생일파티에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마지막 8회기 또한 세션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긍정적 기억을 오래 간직하도록 가족들이 각자 선호하는 캐릭터 헬륨 풍선을 선물하고 연주 활동 폴라로이드 사진을 전시하는 가운데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3) 음악으로 소통하는 풍요로움

음악 자체가 가지는 요소는 감정을 자극하고 공감하게 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었다. 생일을 맞은 가족 구성원을 위해 가족들은 각 악기의 고유함을 진지하게 탐색하며, 어울리는 악기 음색과 언어적 메시지를 합일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선율 악기와 무선율 악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였고 여러 장르의 음악 감상 또한 반복하여 듣거나 빨리 재생되기를 고대하였다. 특히 어머니는 ‘풍선’ 노래의 가사토의에서 아름다웠던 과거의 향수를 자아내며 회기 중 가장 밝고 환한 표정을 보였다.

“저희 어릴 때는 남자, 여자 구분해서 놀지 않잖아요. 그때는..그렇죠...
공기놀이도 다 같이 하고..중고등학교는 다 여학교만 다녀서 초등학교
기억이 제일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뭔가 더 활발하고..”

풍선 무브먼트 활동에선 부드러운 음악 선율의 지지를 받으며 풍선을 띄우거나 서로 주고받는 몰입을 경험하였다.

다. 가족의 재해석

(1) 그래도 우리는 가족

회기 진행 중 방해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점차 순서와 규칙 등에서 배려하는 성장의 모습과 가족애를 충분히 반영한 내용들이 드러났다.

“티격태격하지만 애들이 다 이렇게 자라는 거니까요. (중략) 아이들은 저의

보호막이에요.” (어머니)

음악 이어 그리기 작품의 제목은 ‘너, 나, 그리고 우리’ 로 가족의 토론 과정으로 정해졌으며 제목을 통해 하나 된 가족의 의미를 담아냈다.

(2) 엄마의 수고와 사랑 확인

활동 순서에서 세 남매는 전반적으로 엄마가 먼저 참여하도록 권유하거나 선 발언권을 주었고 또 엄마를 보호하려는 내용들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하트 방어막이 될 거야. 나를 죽여라! 나는 제물이다. 엄마를 죽이면 원판 뒤에서 꺼내올 거야.” (첫째와 셋째)

음악 감상 후 클레이 요리로 작품을 표상할 때는 엄마를 위한 음식, 엄마와의 뷔페로 작명하며 엄마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드러냈다.

(3) 응집과 변화의 힘

회기 초기에는 다소 소란하고 질서가 무너지는 반응을 보였으나 악기 연주 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순서 규칙을 지켜갔다. 공격적이고 부정적 언어 소통 또한 감소 되었다. 반면에 격려와 칭찬의 대화 속에 지지적 언어는 증가 되었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완성도 있는 톤차임 합주가 이루어져 가족의 응집과 합일된 성취감을 느꼈다. 가족 스스로가 발견한 문제 해결에 대한 가족선언문 ‘Don’ t touch me’ 미션 또한 차츰 습관으로 형성되어갔다. 우리 가족의 피크닉을 위한 클레이 작업에서는 매우 즐겁게 대화하며 안정적으로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가정방문 음악중재 프로그램이 가족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발견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모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로를 위한 마음을 드러냄으로 기능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이끄는 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부 활동이 제한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S시 교육청 심리지원 교육 복지 사업에 추천을 받은 한부모 다자녀 가족에게 가정방문 형태의 음악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변화 과정의 사례를 분석 보고 한 것에 의의가 있다. 교육청 교육복지 시스템에 따라 4주간 8회기의 음악중재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가족의 시급한 주호소 문제인 신체적, 언어적 부딪힘 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해결하고자 가정방문 음악중재를 실시하였다. 가정방문 음악중재의 경험과 의미는 ‘우리 가족의 염원’, ‘기다려지는 음악 시간’, ‘가족의 재해석’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적 음악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가족의 응집력과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를 나타냈다. 음악 감상 후 심상을 통해 가족 간의 애정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바라는 점들을 소통하였고, 회기를 거듭할수록 온 가족이 함께 연주하는 톤차임 앙상블은 완성도 높은 합주로 성취감을 느꼈다. 연주 및 감상 표현은 회기를 거듭하면서 서로 방해되는 언행들이 점차 감소 되는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들이 서로 경청, 공감하고 긍정적 기억을 회상하여 지지적인 의사소통으로 한부모가족의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백경실(2011), 이나경(2011)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은 학령기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가족 관계의 기능적인 변화를 확인한 최미숙, 임효연(2022)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둘째, 가정방문 음악중재 사례를 통해 음악의 지지적 특성과 미학적 측면이 정서적 즐거움과 설렘, 기대감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은 인간의 신경화학적 시스템에 관여하는데, 음악적 경험이 일어날 때 기분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Chanda & Levitin, 2013). 이 같은 호르몬의 역할에 따라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정서적 도움을 받게 된다. 이는 면역력의 조절로도 이어지며,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로 발전한다. 많은 음악치료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음악중재의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음악의 치료적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양수아, 박지원, 문소영, 2020; 우덕상, 2021; 이소정, 2000).

셋째, 가정방문 음악중재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영국의 교육 복지서비스는 가족지원 사회복지 서비스로 가족, 학교, 사법당국, 지방교육청·지자체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손병덕, 2008). 호주에서도 기관 간,

부서 간, 또는 학제 간 협업을 통한 개별적 음악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맞춘 가정방문 음악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Williams, TeggeLove, & Day, 2014). 가정방문 상담이나 치료 서비스는 가정환경과 가족의 역량을 평가하고 활용하여 비교적 빠른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류인미, 김광웅, 201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정방문형 음악중재가 실시되는 경우는 현저히 드문 형편이다.

김주은(2019)은 가정방문형 음악치료사의 인식 조사 연구에서 국내에 가정방문 음악치료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며 사례 또한 부족함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방문간호 서비스, 가정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가정방문 작업치료 서비스, 가정방문 운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정방문 음악치료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가정방문 음악중재 사례를 통해 한부모 다자녀가족의 가족기능과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성장 변화와 의미를 확인하였다. 가정방문 음악중재 사례를 통해 가족기능 및 관계의 변화를 살펴봄에 따라 음악의 효용성을 확인한 것뿐 아니라,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의 이점과 필요성을 되짚어 본 것으로 의의가 있다. 또한 가정방문 음악중재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국내의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확대와 적용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한부모 다자녀가족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필요를 지원하고 공교육기관과 연계한 가정방문 음악중재 기회를 확장 운영한다면 가족 관계를 예방적 차원에서 기능적으로 돌봄에 따라 양육지원, 학교생활, 진로지도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부처 간 협력에 따른 가정방문 음악중재 서비스의 효용성을 알아보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2). 초등학교 6학년 음악 교과서. 서울: 비상교육.
- 고경애(2007). 가족기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치료학회지, 15(2), 301-320.
- 강경선(2013). 음악 감상이 중학생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4), 267-283.
- 곽승주, 전순영(2013).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 및 이야기 구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0(5), 991-1012.
- 권오선, 오한나(2021). 음악 그림책을 통한 그림표현에서 나타난 유아의 음악에 대한 시각화 특성 분석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2), 177-209.
- 김민수(2011). 가정방문 물리치료 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 이다미(2011).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와 부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3), 49-81.
- 김종인(2010). 음악 원형을 통한 개인과 가족의 심성변화 가족음악치료학. 파주: 이담 북스.
- 김주은(2019). 가정방문형 음악치료 서비스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 조사.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20). 그룹 음악과 심상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7(2), 101-117.
- 김하얀, 강경선(2015). 이야기를 활용한 회고적 집단음악치료가 시설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1(2), 137-158.
- 노진아, 홍은숙, 이미숙, 박현주, 정길순(2011).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서울: 학지사.
- 도정은(2010). 그룹 노래 심리치료가 뇌졸중 환자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인미, 김광웅(2017). 놀이치료사의 가정방문 놀이치료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놀이치료연구, 21(3), 1-22.
- 문은현, 선우현(2014). 놀이·음악통합치료가 발달지체아동의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6(2), 29-54.
- 박인이(2002). 풍선놀이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실(2011). 음악심리치료가 모-자 의사소통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21).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제4차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01.18.).
- 서경희(2015). 가족음악치료가 초등학교 학생의 공격성 및 가족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병덕(2008).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개발: 영국의 교육복지서비스(Education Welfare Service)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4(2), 41-66.
- 신민주(2021). 가정방문 가족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모-녀 의사소통 향상과 관계 회복

- 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1), 313-327.
- 양수아, 박지원, 문소영(2020). 뇌졸중 환자 대상 국내 음악중재 연구 논거 고찰. 예술심리치료연구, 16(4), 23-45.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오선화, 황은영(2019).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음악치료 활동 경험의 의미 탐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1), 141-166.
- 윤선영, 강경선(2016).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2), 119-138.
- 우덕상(2021). 음악치료와 국악치료가 ADHD 아동의 심리 및 신경생리학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근매(2011). 다문화 가족 상담과 미술치료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상담, 1(2), 57-71.
- 이나경(2011). 여성 한부모 가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치료적 음악 만들기 사례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8(2), 21-46.
- 이동은(2008). 심리치료 이론과 음악치료의 적용.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정(2000). 장조와 단조를 중심으로 한 음악적 정서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13). 연극놀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 광명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 김동민(2010).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최미숙, 임효연(2022).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및 여가활동이 학령기 자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3), 606-616.
- 최윤정(2019). 여성 한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정책연구, 19(2), 49-66.
- 최준섭(2021).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1년, 초등학교의 내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육학회, 59(2), 159-189.
- 최하영, 김민영(2020).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 한부모의 빈곤과 자녀 양육 어려움에 관한 연구-빈곤 심도와 다차원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3), 35-71.
- 한유진, 서종미(2008). 부모교육으로서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여성가족생활연구, 12, 167-189.
- 홍민주, 순진이(2017).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3(3), 133-155.
- Bruscia, K. & Grocke, D. (Eds.) (2002). Guided Imagery and Music (GIM): The Bonny Method and Beyond.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Bruscia, K. E. (2015). Notes on the practice of Guided Imagery and Music. Dallas, TX: Barcelona Publishers.
- Chanda, M. L., & Levitin, D. J. (2013). The neurochemistry of music.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7(4), 179-193.

-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3판)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학지사. (원전 2013년 출판)
- Grocke, D. & Wigram, T. (2011). 음악치료 수용기법; 음악치료 교육 및 임상을 위한 지침서 (문소영, 이윤진 역). 서울: 학지사. (원전 2007 출판).
- Reiter, M. D. (2000). Utilizing the home environment in home-based family therapy.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11(3), 27-39.
- Slivka, H., & Magill, L. (1986). The conjoint use of social work and music therapy in working with children of cancer patients. *Music Therapy*, 6A(1), 30-40.
- Thompson, G., & Jacobsen, S. L. (2018).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치료: 치료적 접근과 이론적 조망 (김경숙, 김은주, 황은영 공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전 2017년 출판)
- Wigram, T. (2004). *Improvisation: Method and Techniques for Music Therapy clinicians, Educators, and Students*.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Williams, K., Tegge love, K., & Day, T. (2014). Contemporary cultures of service delivery to families: Implications for music therapy. *Australian Journal of Music Therapy*, 25, 148-173.

〈Abstract〉

A Case Study of Home-Based Music Intervention for Single-Parent Multiple Child Family

Jo, Hui-yeon · Lee, Mia · Moon, So-young

Joyance Arts & Culture Education · E-um Arts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
Myongji University

This case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e that single-parent, multiple child family experienced through music intervention during home visits as well as its meaning. The study participant was a single mother, and multiple child family receiving education welfare from the Seoul Office of Education, comprising the mother, a boy in sixth grade, a girl in fourth grade, and a boy in second grade. The study was held from November 14 to December 5, 2020, with two 60-minute sessions each week for a total of 8 session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method proposed by Stake, and the meaning of therapeutic experience was derived through verbatim records and diaries of each session. The study found that the participants discovered the difficulties of interaction in the family themselves and experienced growth in positive communication.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revealed three major categories and nine core themes: (1) 'My Family's Wish' with the themes of Discussing Uncomfortable Relationships, Knowing My Heart, and Happiness Together; (2) 'Awaited Music Time' with the themes of Longing for Releasing Emotions, Excitement to Come Home, and Enrichment in Communicating Through Music; and (3) 'Reinterpretation of Family' with the themes of Still We Are Family, Find out of mother's hard work and love, and Power of Cohesion and Chang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confirms the home-based music intervention service led to positive growth in the family function and interaction of a single mother, and multiple child family.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presents a case of a home-based music intervention.

Key Words: Single-Parent Families, Multiple Child, Home-Based Music Intervention, Case Study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③ 본 향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놀이치료, 상담심리, 언어치료, 예술심리치료, 음악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 이상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8만원(급행논문 심사비 12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자. 『통합치료연구』는 연2회 발간(2월 25일, 8월 25일)하고 있다.

차. 논문의 인쇄 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이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과 전송권은 학회로 귀속된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통합치료연구] 투고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중고딕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4
본문	신명조	11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 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 명조
참 고 문 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 고 문 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진하게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사이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쉼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에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 “...”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 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자(출판년도)” 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 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 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 와 “출판년도” 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 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 문 헌” 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 로 표기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 를 표기하고, 외국인은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 나 “0000 et al.” 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2) 영문: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 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 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 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2) 영문: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수여대학. 학위명.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 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 으 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
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
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
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
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
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 으로. 서
울: 동부.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
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 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 < .001$, $F(1,129) = 2.71$, $t = 4.52$).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 $p < .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 = .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예술심리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심리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예술심리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정지)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위원장 : 1명
6. 학제 간 연구위원장 : 1명
7. 편집위원장 : 1명
8. 국제교류위원장 : 1명
9. 윤리위원장 : 1명
10. 홍보위원장 : 1명

제14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8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9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위원장, 학제 간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0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1. 편집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2.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3. 학제 간 연구 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4. 홍보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대외협력 및 홍보
5. 학술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교육특강 등 주관 및 교육

제5장 회 의

제2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6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7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3. 본 개정은 2017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편집위원 : 최예린(명지대학교)
박은선(명지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아라(경상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임지숙(명지대학교)

통합치료연구 제14권 1호

2022년 8월 25일 인쇄

2022년 8월 25일 발행

발행인: 문소영 (한국통합치료학회장)

(우)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국제관 4715호

Tel: 02-300-0883

E-mail: ksit@naver.com / ksit_journal@naver.com

인쇄처: 금성인쇄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